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4월 21일)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극복 원력 불자 보시행 빛났다

동행 코로나19 모금 결과 살펴보니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던 시기, 가장 소외되고 힘든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불자들의 정성이 빛을 발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결과 단 79일만에 8억 9240만원이 모연됐다. 이는 고성산불 피해복구, 세월호 희생자 지원 등 그간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국내 긴급모금 중 최고액수다.

특히 이번 모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인동참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체 동참수 1612건 중 개인동참자 수는 1467명으로 집계됐으며, 법명으로 동참한 스님 동참자 20명을 포함하면 1489명으로 전체의 92.2% 수준이다.

이어 사찰 동참이 88곳(5.5%)으로 확인됐으며, 기업이 22곳(1.4%), 단체 16곳(1%) 순으로 집계됐다. 사찰과 단체 후원 역시 신도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후 총액을 전달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긴급모금은 그야말로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모금방식 또한 기존 CMS, 자동이체 등이 아닌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그간의 긴급모금은 사찰 차원의 동참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번 코로나 모금은 사찰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봉행하지 않은 시기에 진행돼 개인모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더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모금액은 사찰 후원이 약 3억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계종 교구본사부터 타종단 사찰까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상당수가 신도들의 자발적 모연으로 마련된 성금에 사찰 재정을 일부 보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를 단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여파로 재정 타격이 컸음에도, 소외이웃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감동을 전했다.

대표적으로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는 본사와 말사, 자원봉사단과 신도회 등 교구 사부대중 차원에서 모연활동을 전개한 결과 8750만원을 전달했으며, 14교구본사 범어사와 한마음선원도 내부 모연을 통해 각각 3000만원, 4200만원을 기탁했다.

단체 후원 역시 국회 정각회, 조계종 종무원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이 사전 모금을 통해 정성을 모았다. 해피베이비어린이집 등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마음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신학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취지인만큼 종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79일 만에 8억 9240만원
국내 긴급모금 중 '최고액'
개인 동참율 91%에 달해
"어려움 극복 후원 집중"

대구 · 병원에 기금 사용돼
향후 소외계층 지원 계획

이어 기업 후원은 약 2억 600만원, 스님 후원이 약 1억 6700만원, 단체 후원이 약 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후원은 약 1억 4400만원으로, 동참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로 확인됐다.

한편 긴급모금을 통해 모연된 기금 중 일부는 3월초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지역과 경북지역, 코로나 치료를 위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동국대 의료원, 중국 내 감염 예방물품 지원에 각 1억원, 경주지역에 3000만원이 긴급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남은 기금은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소외된 분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후원자분들의 정성을 깊이 헤아려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희망으로 전달하겠다"며 "긴급모금은 종료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기에,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후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회노동위원 스님이 기도회에서 영가를 위로하는 법고를 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 희생자 위한 기도 올립니다"

조계종 사노위, 7일 광화문 광장서 기도 입재

2월 20일 경북 청도대남병원서 장기입원환자가 고열 증세로 치료받던 중 폐렴 증세로 숨졌다. 국내 첫 코로나 첫 사망자였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총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애도는 이뤄지지 못했고, 사망 수치로만 기록됐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을 비롯해 법상, 지몽, 고금, 시경, 서원 스님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혜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나온 발언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사망자를 그저 공포의 숫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마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아픔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대에 쌓인 채 화장된 고인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도회는 15일간 이어지는 극락왕생기도의 시작이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비, 바람이 몰아쳐도 번갈아 가며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제대로 장례 의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별한 분들이 많다. 종단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외면당한 이들의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도회에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에 코로나 종식시기에 종단 차원의 천도재를 열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5000여 스님 재난지원금 기부

5월 1일 기부계획 공식 발표
종무기관 · 사찰 소임자 대상
공식 기부 의사 종교계 최초
文 "종교계 기부 의사 존경"

조계종 종무행정직 소임자 5000여 스님들이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키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5월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당국에 감사드린다"면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전국 본말사에서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 5000명은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종교계 단체 중 조계종이 최초다.

조계종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조계종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기부를 밝힌 불교와 종교계 등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발적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개월 여 간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 등을 중단해 왔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오색 10만등 장엄불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전쟁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희생된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그리고 남북 민간인 138만명의 넋을 위령·천도하고 해원과 상생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 10만 추모의 등(燈)불을 밝히고 수륙대재와 추모음악회를 봉행합니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64(2020)년 6월 6일 ~ 7일
장소 : 해인사 경내 일원
6월6일(토) 오전 10시 - 전쟁과 평화의 사진전, 사찰음식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저녁 7시 - 추모음악회
6월7일(일) 오후 1시 수륙대재
오색 10만등 장엄불사 동참 : 1인 1등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51-1117-9813-53(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法寶宗刹海印寺 문의 : 055) 934-3105~6 www.haeinsa.or.kr

해인사, 한국전쟁 아픔 치유한다

6월 6일~7일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봉행

오로단 설치… 희생자 추모
사회 각계 평화메시지 발표
기상나팔 등 파격적 의식도
오색 '10만 추모 연등' 장엄
사진전 등 문화 행사 다채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다. 이유도 모른 채 증오의 총부리를 겨누고 많은 이들이 가족과 민족을 그리워하다 숨을 거두었다. 이들을 위한 화해의 영단(靈壇)이 해인사에 세워진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6월 6일~7일 경내 일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해인사 수륙대재는 한국 전쟁 70년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개최된다. 수륙대재에 모시는 영가도 국군 뿐만 아니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한 민간인 등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70년의 한(恨)과 아픔을 위로하는 '해원과 상생을 위한 장'이다.

해인사는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희생된 138만 명의 아픔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수륙대재와 추모음악회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평화, 통일, 번영으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일련의 추모행사는 6월 6일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추모음악회'로 시작을 알린다. 추모음악회는 오후 7시 해인사 경내 보경당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하루 동안 해인사를 방문하는 모든 추모객을 위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해인사 진입로와 경내 일대에는 추모를 위한 영가등이 설치돼 천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가족 단위로 해인사를 찾는 일반 방문객을 위해 △통일염원 소원지 작성 △사찰음식 체험 △에코백 및 스크래치 나이트뷰 체험(한국전쟁 상징 도안) △전통차 체험 △삐에로 마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문화 체험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수륙대재가 열리는 7일에도 진행된다.


법보종찰 해인사 전경. 해인사는 6월 6일~7일 경내 일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수륙대재는 7일 오후 1시에 비로탑전 앞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된다. 수륙대재는 전통의식과 함께 군 의장대, 군악대, 취타대, 어린이 합창단 등의 연주와 사회 각계의 평화 메시지도 발표된다.

해인사는 특히 영가가 올 수 있는 길, '오로단(五路壇)'을 설치한다. 오로단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5개의 길을 하나의 길로 모으는 것을 상징하며, 육지와 바다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당한 영가들을 한길로 모으는 의미도 가진다. 비로탑을 중심으로 각 방위를 상징하는 5가지 색깔 천을 설치하고 하늘을 향한 쪽에는 오방천을 깔아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아군과 적군 등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를 모시는 대표 위패를 세우고, 영가 대역을 정해 오로단에 함께 서도록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해인사 수륙대재는 전통 수륙대재에서 볼 수 없는 트럼펫 기상나팔 연주와 위령음악회 등도 진행해 파격적인 의식을 보여 줄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의식들은 한글로 진행한다.

해인사는 6월 6일 행사 당일까지 참배객들이 작성한 소원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수륙대재 당일 화로대에서 소지해 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아울러 영가 천도를 위해 오색 10만등을 경내를 장엄한다. 오색 10만등은 1인 1등 3만원이다.

해인사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종찰이다.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정신이자 상징"이라며 "70주년을 맞아 봉행되는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화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934-3105~6

"안타까운 죽음 당한 영가 '왕생극락'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불교계 단체 추모 이어져

이천불교聯, 천도의식 봉행
조계종 사노위, 규명 촉구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불교계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불교연합회(회장 인성) 소속 스님들과 신도 50여 명은 5월 6일 화재 참사 희생자 38명의 유해가 안치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스님들은 미리 준비한 '천혼문(薦魂文)'을 함께 합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들은 천도의식 후 분향소 옆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해 유가족들을 위로 했다. 이천 지역 스님들은 특히 사찰마다 기도를 올릴 것이라며 십시일반 모은 200만원을 위로금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장 인성 스님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전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비극이다. 삶의 터전에서 변고를 당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았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며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에 이어 그동안 안전사고가 있어 안타깝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는 5월 6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제공=기호일보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찬)는 5월 7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극락왕생 발원기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한 원인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고원인 및 책임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중대사고 기업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응

템플스테이 방역 강화 및 종립학교 등교 준비

불교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강화 등 코로나 예방에 다시 나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근 템플스테이 재개에 따라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코로나 정보 및 대응지침을 하달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10인 이상 단체예약 금지 및 1인 1실 배정을 비롯해 참가자가 칫솔과 수건 등 개인물품을 지참하고, 공용식기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별 공양과 개별공양 불가능시 이용시간 조정 등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접촉 최소화를 요청했다.

또 각 방사마다 손소독제와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방역을 위한 소독수와 함께 참가지 마스크도 지원키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위생과 방역, 관리에 보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한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인근 의료기관과의 긴급 협력체계도 구축해 유사시에는 발빠른 대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안심하고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에 맞춰 종립학교들의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석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책상마다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책상 간격도 1m가 넘도록 배치했다.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등교시간을 차이가 나도록 하고, 쉬는 시간 학생들이 화장실과 매점 등에 몰리지 않도록 이용시간도 편차를 두어 운영키로 했다. 또 각 교실 입구마다 항균 필름을 부착하고 바닥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등 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편, 전국불교대학은 5월 초 일제히 개강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사지침을 내려 2주간 방역지침 준수와 관공서 방역점검 등과 연계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네팔 지진 피해 복구사업 '성료'

동행, 5년간 사업 진행
13개 피해 기관 도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성료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최근 "2015년 4월 네팔에 발생한 대지진 피해복구 사업을 5년간 진행해 13곳 시설에 대한 재건복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한 복구 시설은 총 13곳이다. 2015, 2016년 NGO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구촌공생회와 다함께 나누는 세상(전 젊은부처들)이 초등학교 2곳 등 총 4곳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아름다운동행에서 직접 재건한 나머지 9곳은 올해 4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으로 지진 이후 무너지거나 붕괴 위험이 있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교실, 도서관, 기숙사의 신축 및 개보수가 이뤄졌다. 특히 마을회관과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복구해 마을 내 복지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앞으로도 재건복구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팔의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사업은 지진 당시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보내준 성금 약 23억원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신임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사진>가 4월 30일 통일연구원 제1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고 교수를 통일연구원장으로 선임 ·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1994년부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로 있으며 북한연구학회 회장(2012년)을 지낸 바 있다. 2017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에서 위원장(2017~2019년)을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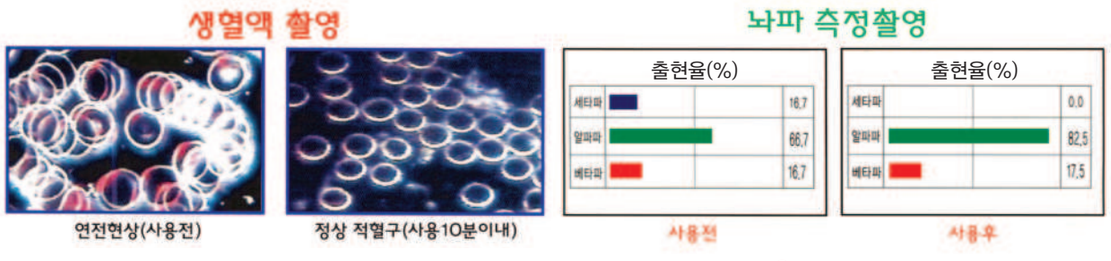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나라 달라도 봉축 기쁨 '한마음'

재한이주민법당 '웨삭데이'
캄보디아 등 5월 7일부터
몽골은 윤달기준 6월 6일
행사 축소해 위로법석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캄보디아 불교센터가 5월 7일 봉행한 웨삭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국 재한이주민법당도 봉축법회를 잇따라 봉행한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상좌부 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은 '웨삭데이'라고 일컬어지며 올해는 5월 7일(음력 4월 15일), 몽골과 티베트 등 북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은 윤달 기준 음력 4월 15일인 6월 6일이다. 각국마다 봉축의식과 문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은 같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상당수 재한 이주민 법당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어려운 시국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불안한 이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평택에 위치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은 5월 23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한국 불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오후 4시~5시, 5월31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스리랑카 불자들을 대상으로 '웨삭데이' 법회를 봉행한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애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웨삭데이 행사를 생략하고 당일 스님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예불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자들의 요청으로 공식법회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친지들의 안위를 발원하기 위한 축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국 스리랑카 불교협회는 올해 웨삭데이 행사를 전면취소했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이주민들이 그동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데 이어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 걱정까지 더해져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마하위하라 신도들 중 4명이 우울증 및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내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수도 올 상반기만 50명이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웨삭법회는 관념명상 수행과 보배경 독송과 법문 등 마음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매년 웨삭데이마다 2000여명의 인원이 모여 며칠간 성대한 법회를 봉행해 온 천안 베트남사원 원오사(주지 팃뜨엉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행사를 전면 축소했다. 특히 지역법회 일정을 모두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지역 불자들의 강경한 요청으로 천안 원오사와 울산 두 곳에서만 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울산 법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천안 법회는 5월 17일 오후 5시 봉행된다.

캄보디아불교센터(주지 린사로)도 캄보디아력으로 웨삭데이 당일인 5월 6일 저녁 사원을 방문한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회를 진행했다. 캄보디아식 웨삭법회는 탁발의식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올해는 법회 외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린사로 스님은 "4월31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롱 디망쉐 대사 가족과 불자들이 방문해 축원으로 웨삭법회를 대신했다"며 "올해는 행사 없이 웨삭데이 관련 법당을 방문한 불자들을 위해 간단한 의식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네팔사찰 텍첸사(주지 쿤상)는 5월 31일 웨삭법회에 이어 6월 6일 티벳식으로 사가다와(부처님의 달) 법회를 봉행한다. 쿤상 스님은 "법회를 네팔식으로 진행할 경우 오전 6시부터 밤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식 예불과 간단한 법문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법당은 올 6월 6일, 몽골력 기준 4월 보름날이 맞이하지만 전면축소를 염두에 둔 채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다. 바트보양 스님은 "매년 법당에서 봉축법회를 하고 한강에서 민물고기를 방생하는 의식을 해왔지만 올해는 외부에서 방생법회만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속 도농상생 조계사 직거래 장터

코로나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직거래장터가 서울 조계사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등을 한 불자들은 농민들을 위한 십시일반 물품구입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주문 옆 주차장에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육농이 나르샤'를 개최했다. 이날 장터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년 6개군과 달리 강진과 영암, 함평, 해남 등 4개군이 참여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장터를 열게 됐다. 물품을 구입하는 장터가 아니라 농민들을 살리는 장터"라며 "불자들이 농촌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2017년부터 매월 초하루부터 의성, 함평, 강진, 해남 등 6개 군과 장터를 열어 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코로나 극복 기부 릴레이

직원노조·처부장회
장학금 8천만원 기부



동국대 정왕근 노조위원장(왼쪽)과 김대욱 총무처장(왼쪽 세번째)이 5월 6일 윤성이 총장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8000만원을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국대 구성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5월 6일 동국대 노동조합과 처부장회 회원 일동이 윤성이 총장을 찾아 8천만원을 전달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부금 전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동국대 노동조합 정왕근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학교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과대 교수님들과 학교 정책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기부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이 총장은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 참여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구성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사태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느 때보다 동국대학교가 하나 된 기분이 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김관규 연구부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동국대는 4월 27일부터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까지 교수, 직원, 동문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소외계층 돕는 사람들 ① 다나 대표 탄경 스님

"어려울 때 도와야 '眞종교' 뜻이 있으면 길 있기 마련"



코로나에도 노숙인 지원행
평소보다 30% 후원 줄기도
도반들 도움으로 밥차 마련
새로운 지원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지난 2~3월. 역병은 가난한 자에게 더 잔인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더한 고통이었다.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보살폈던 스님이 있다. 바로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이다.

5월 7일 다나 사무실에서 만난 탄경 스님은 "거리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다"고 노숙인 지원을 이어갔던 이유를 밝혔다.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고 노숙인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 끼 식사마저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여느 때와 같이 지원을 지속했다.

탄경 스님은 매주 토요일 새벽 3시30분 컵라면, 즉석식품, 초코파이 등을 수레에 실어 봉사자들과 함께 광화문, 을지로, 탑골공원 등지의 노숙인들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에서 마스크 1440장을 지원받아 이를 5개들이 1개 세트로 개별포장해서 매주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스님은 "편안할 때 남에게 도움은 누구나 줄 수 있다. 어려울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며 "종교는 어려울수록 이웃을 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평소 도반 스님들과 신도들에게서 정재를 후원받고 있다. 저에게는 노숙인과 쪽방촌 지원이 수행"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나에 들어오던 후원은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었다. 어려워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특히 도반 스님들의 도움이 컸다.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은 통조림 등 노숙인 지원 물품을 후원해줬으며, 다나의 해외지원 사업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밥차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수계 도반 정인 스님(조계종 포교부장)과 진광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탄경 스님은 "학생 시절 남산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이었는데도 한기가 들었다. 노숙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5월 20일에 차량을 인수한다. 첫 지원은 연기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에 종로 익선동 쪽방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회를 중단하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불교계의 모습이 진정한 '호국불교'의 모습이라고 했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산 속으로 숨고 관제화됐던 불교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남을 돕는 모습이 올바른 '호국'이라는 것이다.

탄경 스님의 최종 목표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때나 찾아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24시간 지원급식소'를 세우는 것이다.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능하도록 해야죠. 좀 더 제가 동냥하고 다니면 됩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 본디 비구의 의미는 '걸사(乞士, 걸식하는 사람)'였다.

신성민 기자

후원문의 (02)730-0715
후원계좌 006001-04-311125
국민은행 (사)다나



신록의 5월, 부처님 만나러 가볼까

부처님오신날 맞이 대형 전시회 '봇물'

보물 '은해사 괘불' 전시부터
강원지역 발굴 문화재 전시도
영월 흥녕사지 불상 첫 공개
불교중앙博 서산대사展 예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물 제127호 영천 은해사 괘불. 1750년 화승 보총과 처일이 그린 것으로, 높이 11m, 폭 5m에 달한다. 10월 1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 전시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연기됐던 전시회가 속속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달 뒤로 연기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전시회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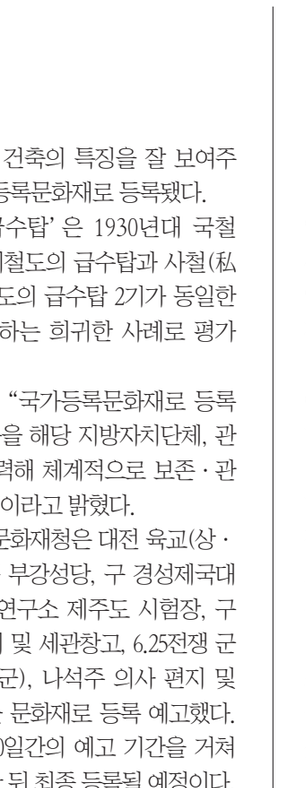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5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0 국립중앙박물관 괘불전 '꽃비 내리다-영천 은해사 괘불'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5일 임시휴관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천 은해사 괘불(보물 제1270호)과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보물 제1857호)가 전시된다.

영천 은해사 괘불은 1750년 화승 보총(普摠)과 처일(處一)이 그린 것으로, 높이 11m, 폭 5m가 넘는다.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화면 중심에는 만개한 연꽃 위에 부처가 서있다. 부처 주변에는 부처를 공양하듯 흐드러지게 핀 모란꽃과 연꽃이 꽃비처럼 흩날린다. 주인공은 석가모니불로 보이지만 화면 주변의 화려한 꽃과 화면 윗부분의 새들의 모습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연상시킨다. 이에 따라 괘불 주변의 꽃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뿌려진 청정한 공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미타불의 극락에서 내리는 꽃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부처의 존명을 단정할 수 없지만 괘불 주변에 흩날리는 꽃비는 홀로 서있는 여래를 더욱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이번 괘불전에는 은해사 괘불과 같은 해인 1750년에 조성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를 8월 23일까지 함께 전시한다.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극락에 태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화다.

영천 은해사는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도량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길 바랐던 이상향이다. 극락에 태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염불수행자들을 인도하고 만나는 아미타불과 보살, 극락의 정원까지 그려진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를 통해 아미타불의 세계인 극락의 찬란한 광채를 느낄 수 있다. 이번 괘불전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서 온라인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영월 흥녕선원 터서 출토된 국보급 반가사유상. 춘천국립박물관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5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0년 첫 기획특별전으로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을 개최한다. 지난 10년 동안 강원지역의 주요 발굴 성과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영월 흥녕선원 터에서 출토된 반가사유상과 삼척 흥전리 비석 조각을 비롯한 주요 출토품 약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삼척 흥전리 절터 비석 조각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전시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이번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그 문화재가 알고 싶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전시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종이에 적어 정해진 장소에 남기면 큐레이터가 답을 하는 방식이다.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7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삼척 신흥사 성보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신흥사 관련 기록물과 불상, 불화 등이 전시된다.

기록물은 운흥사사적(1870), 태백산 운흥사 불량문(1824), 삼척군지(1916), 강원도지(1941), 진주지(1963) 등 조선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기록들이다.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은 1711년 조각승 숭식(崇式)과 여철(呂哲)이 조성한 신흥사 석조관음보살좌상(1711)으로, 불상은 경주 불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선후기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성 시기와 장인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화승 신겸(信謙)이 조성에 참여한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700년경)도 선보인다.

불상과 함께 신흥사 아미타후불도(1875)를 비롯하여 운흥사 천룡탱화(1755), 신흥사 신중탱화(1875) 등 다양한 불화도 전시된다. 당시 유명했던 화승들이 참여한 것으로 뛰어난 기법을 엿볼 수는 작품들이다. 특히 19세기 중엽부터 강원도 지역 불화를 주도했던 금강산파 축연의 초기 작품을 볼 수 있으며, 1875년 그린 신흥사 아미타회상도는 초본이 함께 전해지고 있어 불화제작의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불화승의 섬세한 필선을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불교중앙박물관이 '전통사경의 본지풍광전(5월 14일~7월 30일)'과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 기념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전(5월 14일~6월 3일)'을 준비하는 등 부처님오신날 기념 전시회가 속속 열릴 전망이다.

근대불교잡지 '불교'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 4일 등록 공고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제 당시 불교 현실 확인
근대불교 연구 중요 자료

근대불교 종합 잡지인 〈불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근대불교 잡지인 〈불교〉와 김천고 본관·구 과학관, 수원역 급수탑,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5월 4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등록된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돼 1933년(통권1~108호)에 폐간됐다. 이후 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통권1~67호)까지 발행됐다.

〈불교〉에는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해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아 '정(政)·교(敎)를 분리하라(제87호, 19319.9)', '조선불교의 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해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했다. 현재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돼 있어 완결성이 있다"면서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등록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천고 본관'은 한국 근대 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천고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 학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기 불교종합지 '불교'의 1924년 창간호 첫 페이지(사진 위)와 창간호 목차(사진 아래)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불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대전 육교(상·하행선), 세종 부강성당,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등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들 6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혜거 스님, '역경기금 1000만원' 쾌척

4일 윤성이 총장에 전달



동국대 역경원장 혜거 스님(사진 오른쪽)은 5월 4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사진 왼쪽)에 역경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이자 신임 동국대 역경원장인 혜거 스님이 5월 4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만나 동국대 역경원 발전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혜거 스님과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을 전달한 혜거 스님은 "동국대 역경원장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이 기부금이 역경 사업 추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전달식에 배석한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은 "교계에서도 혜거 스님의 역경원장 수락 소식을 듣고 훌륭한 분을 모셨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윤성이 총장은 "오랜세월 경전 번역과 경전 강의를 해오신 스님께서 역경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셔서 매우 든든하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부처님 말씀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역경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혜거 스님은 2019년에도 동국대에 대원상 대상 수상 상금 전액인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당시 혜거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전파하며 받은 상인만큼 불교 인재를 키워내는 동국대에 상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토마을, 적멸보궁 불사 고하다

원만회향 '도량재' 봉행

印마힌다 스님이 전한
佛진신사리 봉안 예정
연면적 1,163㎡ 규모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는 5월 3일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 건립 도량재' 를 5월 3일 법당 건립 부지에서 봉행했다.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삼천불을 봉안 할 법당이 조성된다.

자재요양병원은 불교 호스피스 전문 요양병원으로 죽음을 맞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처님 품안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가족들과 환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고자 해도 여법한 법당이 없어 교육원 강당에서 법회와 기도를 이어왔다.

이에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5월 3일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 건립 도량재를 법당 건립 부지에서 봉행했다. 도량재는 불사 시작을 시방세계에 고하는 의식과 함께 불사 원만회향 기도로 진행됐다.

도량재는 본격적으로 불사를 시작하기 전, 시방세계에 불사 시작을 알리고 원만한 불사 완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도량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사장 능행 스님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스님들은 2시간 30분 동안 예불의식과 염불로 도량을 청정하게 맑히는 의식을 거행했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정토마을 자재요양 건립 전 부터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처님이 주는 참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법당 건립을 기원해왔다. 간절한 발원에 대한 응답처럼 2016년 정토사 관자재회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 스님이 불교 전파를 위해 스리랑카로 이동해 일부를 세루빌라사(寺)에 봉안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1923년 힌두교 난입으로 폐허가 된 세루빌라사를 복원 할 당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발굴하고 검증을 받아 콜롬보 다투말루사로 이운했다. 다투말라사는 2015년 10월 정토마을에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시리세나 스리랑카 6대 대통령이 전수해 2016년 3월 21일 정토마을에 봉안됐다.

진신사리와 삼천불이 봉안될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은 복층 구조로 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3층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1,163㎡ 규모이다. 지붕은 금으로 장엄된 불사조 형태의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이뤄진다. 완공 예정은 2022년 5월이다. 삼천불은 지하 1층에, 부처님 진신사리는 지상 1층에 봉안될 예정이며 특별히 부처님 진신사리는 누구나 직접 친견할 수 있도록 봉안된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사리 이운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불교문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당부했었다"며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탑 안에 사리가 봉안돼 보기가 힘들다며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접수중인데 사리가 출토 된 세루빌라사 모습을 재현하고 사리탑을 축소해 모델화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방안을 기획중이다"고 덧붙였다.

울산 지장정사, 진신사리 9층 석탑 '우뚝'

4월 3일 법회… 무구정광다라니 등도 봉안

울산 지장정사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난존자 사리를 봉안한 팔각 9층 석탑이 세워졌다.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4월 30일 극락전 앞에서 팔각 9층 석탑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 봉행된 봉안 법회에는 영선사 정우 스님, 회주 중화 스님, 마힌다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이채익 국회의원, 안수일 시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지장정사 팔각 9층 석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난존자 사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함께 봉안됐다. 진신사리는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마힌다 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난해 이운됐으며, 지장정사는 일 년 동안 석탑 봉안식을 위해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사경하고 독송 수행해 왔다.

석탑 팔각 9층은 시방삼세를 의미하며 부처님 사리인 진신사리와 무구정광다라니경과 아난존자 사리는 불법승 삼보를 상징한다. 높이는 8m규모이다.

봉안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주지스님 인사, 내빈소개,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원문 및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됐다.

현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재난극복 일환으로 봉안하게 됐다"며 "중생의 삶속에 함께 하는 부처님 사리탑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영도구불교聯, 봉축 오륜탑 불 밝혀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5월 1일 부산 영도구 봉래 교차로 교통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진행했다.

점등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 됐으며 신도들의 참석없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법사 도성 · 정각 스님, 회장 호법 스님, 부회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 회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스님들과 정계 내빈만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동불교사암聯 봉축 법요식 연기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5월 23일 개최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봉정사 주지)는 5월 23일 연합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인 4월 30일이 아닌 5월 30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행사로 5월 9일 웅부공원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은 예년과 달리 사암 승려 및 신행 단체장들만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열렸다.

사암연합회는 5월 23일 오후 7시 웅부공원서 안동시, 사암신도회, 각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연합법요식을 개최한다. 법요식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원문' 이 봉독되며, 예년과 달리 제등 행렬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코로나 인재불사 눈길

연등장학재단 5월 5일 제15회 장학금 전달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5월 5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5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설립 16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갈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의 소양을 갈고 닦아 미래사회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 마음이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니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은 2004년 사재 6억원과 임야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 동안 577명의 학생들에게 총 4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화엄사 각황산 복장낭 불사 회향

주지 덕문 스님 불사 발원
1년간 연구 · 작업 거쳐
전통의식 복원 의미 더해


구례 화엄사는 5월 2일 복장낭 불사를 회향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전통을 되살린 특별한 불사가 회향 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5월 2일 각황전에서 각황산 후불탱화 복장낭 불사회향 법회를 개최했다.

복장낭이란 탱화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하는 복장물로, 불상에 복장을 하듯이 탱화의 위쪽 중앙이나 양쪽에 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 여러 복장물을 넣어 두는 성물이다. 최근 복장낭 의식이 쇠퇴하여 탱화의 점안의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화엄사는 전통의식 복원 차원에서 각황전 후불탱화를 비롯해 각 전각의 탱화의 복장낭 조성을 마쳤다.

예로부터 화엄사는 대웅전과 각황전 등 각 전각마다 불화에 복장낭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실되고 몇 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남은 복장낭도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법당을 참배해도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주지 덕문 스님이 복장낭 불사를 발원하며 복장낭 불사도감을 설립했고 화엄사 성보박물관 강선정 학예관을 담당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불사가 진행됐다.

이날 복장 갖춤과 점안을 마친 화엄사 후불탱화 복장낭은 대웅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후불탱화와 각황전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 후불탱화 그리고 견성전(탑전) 신중탱화 등 모두 7점으로 침선장 박춘화(대한민국 한복명장 제611호), 자수장 윤정숙(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이수자), 매듭장 안영순(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이수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회향식은 동국대 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법문과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명장을 들이 참여해 자수와 매듭을 넣어, 다른데서 볼 수 없는 복장낭을 만들어 회향을 맞는 것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현불 논단

탈진실 시대와 뉴스 소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념 · 행동 조화 붕괴 시 불안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현대 사회 뉴스 소비도 적용

알고리즘 기반 인공지능 도입
독자 기호 맞는 기사들 추천
언론사 프레임을 독자가 소비
균형 잡힌 뉴스 이용 의문점

진실 · 거짓 구별 어려운 시대
인지부조화 인한 비합리 우려
편향 않은 바른 뉴스 소비를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조화로운 지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조화가 무너질 때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957년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Festinger)가 발표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인지부조화'로 인한 인간의 심리적 불안감은 뉴스 소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만날 때 인간은 심리적 불안감을 겪게 되고, 자칫 무너질지도 모를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뉴스만을 소비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인지부조화'라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잘못된 뉴스 소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합리적 정보 편향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실로 이런 우려는 21세기에 들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힘입은 초연결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뉴스와 정보 이용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뉴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최신 정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입맛에 맞는 읽을거리를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은 나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준다. 하지만 과연 이 변화된 환경이 균형 잡힌 뉴스 이용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뉴스는 속성상 뉴스 생산자의 의도, 즉 특정 프레임이 반영되는 정보제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프레임(frame)'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심리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다. 그 중 미디어학에서 사용되는 '뉴스 프레임(news frame)'은 뉴스가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이나 사건이라도 언론사의 이념적 경향성이나 편집방침 등에 따라서 뉴스 프레임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뉴스 프레임은 단순히 언론의 보도 경향성 차이를 넘어서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안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들이 설정하는 프레임을 통해 뉴스 이용자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정치인의 비리 문제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한 뉴스를 이용한 뉴스 이용자는 그 문제의 원인이 정치집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되지만, 개인의 일화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접한 이용자는 원인을 정치인 개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프레임에 따라 상황의 원인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양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개인과 사회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 되었다. 인간은 사실과 진실이 위기에 처했다는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에 예전보다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인지부조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주위에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뉴스 이용 패턴이 편향되지 않은 스마트한 뉴스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한다.

社 說

조계종 재난지원금 기부에 부쳐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조계종 종무행정직 소임자 스님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부하기로 결정한 대상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에서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들로 대략 5000명에 달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종교계 단체 중 조계종이 최초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와 사회는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4일 주재한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종교인들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조계종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 기사들을 올렸다. 댓글들도 "무교지만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불교신자 한번 되어볼까" 등 긍정적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교계는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었고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긍정' 이미지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기부 결정도 불교가 '국민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을 짚어보면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 '국민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다. 이제 불교는 코로나19로 희생되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종교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국민 종교'로 나아가는 길이다.

코로나 희생자 천도재 필요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5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봉축탑 앞에서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스님들은 5월 21일까지 매일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사노위의 이번 행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보듬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종교계가 앞장서서 코로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치유의 법석으로는 첫 사례다.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지난 3개월, 잇따라 보도되는 확진자의 사망소식에도 정작 사회적으로 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코로나19가 확진자 225명의 목숨을 갑작스레 앗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단지 숫자로만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는 코로나 확진자와 희생자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단순 수치로 환산해 온 우리사회에 '생명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새삼스레 일깨운 일갈인 셈이다.

사회노동위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계종 차원에서 '희생자 영가 천도재'를 봉행토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천도재는 산 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법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독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와 미처 이별을 준비하지 못해 더 슬플 유가족, 코로나 여파로 더 소외된 이웃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사노위 기도회를 계기로 진심어린 추모 분위기가 우리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길 발원한다.

특별기고

생각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권표 스님
일본 교토 고려사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약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위험으로 보는데 반해, 나머지 10%만이 위기를 기회로 본다고 한다. 말하자면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10%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영어 단어 'Impossible'을 보자. 이 단어의 의미는 '불가능'이다. 이 단어에 ' ' '를 더하면 'I' mpossible'이 되어 '가능하다'가 된다.

또 다른 영어문장을 살펴보자. 'Opportunity is nowhere'는 '기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도 보는 시각을 바꿔 보면 다른 문장이 된다. 이 문장에서 'nowhere'를 단어를 나누어 'now here'로 바꾸어 보자. 바로 'Opportunity is now here'가 되어 '지금 바로 기회가 있다'란 뜻으로 바뀌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Change'도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로 변한다. 변화도 달리 보면 언제든 기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이기 마련이다.

흔히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명(運命)'을 탓 한다. 그런데 이 운명이란 글자도 앞뒤로 바꾸면 '명운(命運)'이 된다 즉 '운에 명령을 한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실패'를 보자. 실패가 정말 끝을 의미하는 걸까? 물론, 실패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에는 성공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다각적인 사고로 살펴보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남았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얻은 것 하나 없이 손해만 봤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결코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살다보면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불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과 겸양으로 성실히 살아가면서 참선이나 염불, 주력 중에서 자기 근기에 맞게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행복한 삶은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중국 초나라 때 양유기는 화살로 200m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당대 최고의 궁사였다. 그는 5일장이 설 때마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제가 활 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겠소."

양유기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나그네 양반, 당대 최고의 궁사에게 그렇게 망언을 해도 되는 것이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나그네는 "당신이 매일 같이 활줄을 당기면 활대는 자꾸 굽어지고 활줄은 늘어져 어느 땐가 활줄이 끊어져 개망신을 당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요"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양유기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이후로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허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우리네 속담에 '매사 불여 튼튼'이라고 했다. 인생사는 예기치 않는 난관이 많다. 항상 기도하고 복도 짓고 덕도 쌓으면서 살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6~5/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2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5	부처님을 만나다 : 빠알리성전을 통해 본 부처님 일생	비구일창 담마간다	불방일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자신의 코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선원
9	꽃을 사랑 한다	현진스님 산문집	모과나무
10	보현행원 염불성불	정공스님/허만항	비움과소통

책세상

범자본에서 바로 옮긴 〈반야심경〉



실담범자반야심경
悉曇梵字般若心經

실담범자반야심경
도봉법헌 편저/ 학자원 펴냄/ 2만5천원

실담자 범본 모본으로 번역 해설
현장 한역본과는 다른 번역 보여
범자본 번역 〈반야심경〉은 최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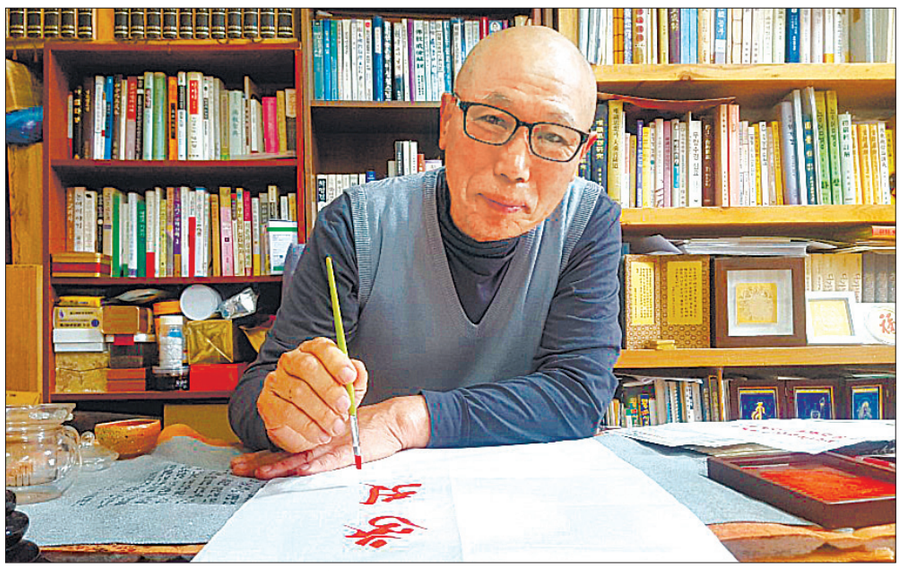
"완전한 지혜를 완성한 마음의 핵심경전, 일체 지자에게 귀의합니다. 성관자재보살이 심오한 완전한 완성된 지혜로서 실천할 때 다섯 가지 쌓임 등에는 자성이 다 공함을 간파하였다. 샤리쁘뜨라여! 실로 여기에는 물질은 공의 상태이며, 공의 상태는 물질인 것이다. …"

범자본을 번역한 〈반야심경〉이 출간됐다. 도봉법헌 스님의 〈실담범자반야심경〉이다. 우리가 읽어왔던 〈반야심경〉의 모본은 범자본을 번역한 한역본이다. 불교경전의 범자본들은 중국에서 번역된 뒤 정책적으로 분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많은 경전들은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형 내지는 왜곡에 대한 의심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경우 범자본이 남아있어 '번역의 번역'에서 오는 의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출간된 도봉법헌 스님의 〈실담범자반야심경〉은 실담자(悉曇字)의 범어본을 옮긴 것이다.

범어실담자(梵語悉曇字)란 인도의 굽타문자 계열에 속하는 문자로서 기원전 2세기경에 아쇼카 부라흐미문자가 기원이 되어 오늘날 인도의 여러 문자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됐다. 범어란 범천이 내려주는 말이라 하고, 실담자는 인도의 불교경전들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정착된 문자로 '완성되다' 혹은 '성취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실담범자 〈반야심경〉은 일본 법륭사에 보관된 패엽본(609년)을 원본으로 하여 8세기 후반부터 6종의 사서(寫書)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책은 그 중에서 고타마 기류와 시즈카 젠의 〈반야심경〉을 참조했다.

〈반야심경〉의 실담범자 소본의 원명은 '쁘라즈냐 빠라미따 흐리다야 수뜨라'이다. 이번 번역을 통해 실담범자의 원본과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중복된 부분과 부정사를 해석하지 않은 것, 어떤 문장에서는 뜻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 부분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번 번역에서 발견된 차이점들을 별도로 선별해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발췌했다.



저자 도봉법헌 스님이 범자로 〈반야심경〉을 쓰고 있다.

대승불교의 반야사상 핵심을 담은 〈반야심경〉은 반야 600부 가운데 최상의 심심미묘한 경전이다. 글자 수는 비록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이다. 지혜의 힘으로 중생계를 벗어나 불경계로 들어가는 '지혜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 핵심은 제법공상(諸法空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고유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반야사상은 공, 무자성, 연기를 설하는 대표적인 대승의 반야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는 반야심경을 설하여 일체의 공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는 필경공(畢竟空)을 설하고,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알 수 있도록 설해져 있으며, 반야의 지혜와 실천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1부를 마친다. 2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운 음성과 음가로 전해진 진언(眞言, mantra)을 음가로 독송 및 암송함으로써 수행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밀교경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 갈파한 '반야바라밀다'나 '공(空)'은 각자의 참된 마음이다. 걸림 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마음이며 부정을 겪어 그것을 넘어선 긍정의 마음이다. 여기서 해탈이 유래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반야심경〉을 보면 실담자를 한역하여 우리말로 해석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해석서도 종종 볼 수 있었고, 막스 뮐러가 일본 법륭사 범본의 사본과 중국 범자사본을 비교하고 대본 및 소본의 교정본을 영역하여 출간한 서적은 있었다. 하지만 범어실담자의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반야심경〉은 없었다.

판본(版本)으로는 고려대장경의 반야부에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번역된 것으로는 1463년(세조 9)에 한계희(韓繼禧) 등이 왕명에 의해 번역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般若波羅蜜多心經諺解)〉 1권 1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이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대본과 소본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에 남아 있다.

평생 실담범자의 원류를 연구해온 저자 도봉법헌 스님은 순천 선암사에서 득도했으며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박물관대학원 수료, 태고종 중앙강원을 수료했다. 2010년에는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연구회를 설립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담범자 서화 전시회를 열었다. 실담범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과 실담범자 광명진언 사경집을 출판했다.

현재 법륜사에서 진언집을 집필하고 있다.

그리스 왕과 인도 고승의 대화



밀린다 왕의 물음
서정형 역해/ 공감과 소통 펴냄/ 1만4천6백원

그리스 왕 밀린다와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같은 대화를 모아놓은 〈밀린다팡하〉가 새로운 번역과 해설로 출간됐다.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은 〈밀린다팡하〉의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여 한국어로 옮기고, 원 텍스트의 참뜻을 쉽게 풀어쓴 해설을 붙였다.

기원전 2세기경에 완성된 〈밀린다팡하〉는 문학적 향기가 짙은 불교 고전 중의 하나이며 인도 산문의 걸작 중 하나다. 〈밀린다팡하〉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원본의 산실과 재편집, 훼손과 첨삭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역해자)는 리스 데이비즈(T.W. Rhys Davids)가 빨리어 원본에서 영역한 〈The Debate of King Milinda〉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고, 이를 요약 편집한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의 〈An Abridgement of the Milindapanha〉를 참조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은 한역본 〈자선비구경〉을 교차 검증했으며, 우리말 번역본의 내용을 대조했다. 특히 페살라의 영역본을 접하고 축약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유나 부연설명을 간소하게 줄였다. 주제별로 재편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밀린다팡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원 텍스트의 뼈대와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제별로 묶어 새롭게 편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화된 시각과 접근법은 기존에 출간됐던 동서양의 여러 〈밀린다팡하〉 번역본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책은 크게 '1부 대론(對論)', '2부 딜레마'로 구성됐으며 권말에는 '해설'과 '부록'을 첨부했다. '1부 대론'은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의 대론이 있은 후 100년 후에 기록된 구본의 내용이다. 1. 무아, 2. 윤회, 3. 업, 4. 마음, 5. 수행, 6. 열반, 7. 붓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곱 개의 범주는 모두 〈밀린다팡하〉와 불교 교학을 관통하는 주요 교리이다.

'2부 딜레마'는 후세에 덧붙여진 신본이다. 서로 충돌하는 교설에 대한 해명을 추구하는 대화법인 '양도논법(딜레마)' 중 핵심 논지만 정리하여 번역했다.

'해설'에서는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의 대화 가운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무아, 업, 윤회, 열반)에 대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저자가 오래전에 쓴 소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이 책의 주요 주제인 무아, 윤회, 열반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유와 통찰의 글로서 독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사유의 틀을 제시한다. 본문과 연계시켜 읽으면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밀린다팡하〉는 밀린다 왕이 질문하고 나가세나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물음의 연속이 아니라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으로 짜여있다는 특성이 있다. 응집된 답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때문에 오독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책은 원 텍스트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도움말과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마다 '요주(腰註)'를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신천비록 新天秘錄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줄, 새 하늘 비밀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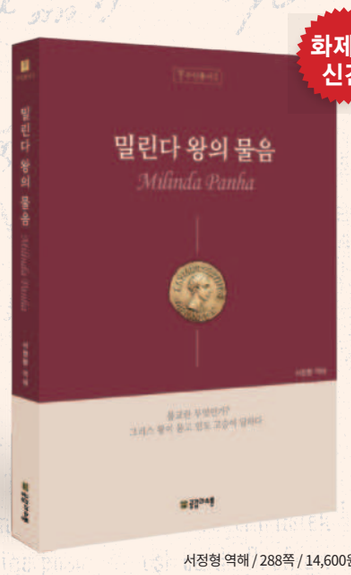


처음 하늘이 열린 태천부터
암흑기인 선천의 시대를 지나,
지금 새로운 후천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우주 하늘의 역사를 밝히고,
사후세계, 사람의 운명,
후천의 신앙과 도, 이기는 자,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리다.

대광 엘리사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구입 문의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서점(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영풍문고 각 지점,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리브로 각 지점 서울종로)대원서적, 서울은평)불광문고, 서울서대문)홍익문고, 서울강서)행복한글간, 구리)동원서적, 수원)녹산문고, 수원)율전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춘천문고 춘천)광장서적, 천안)열린문고, 충주)문학사, 청주)홍문당,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구)세원출판, 대구)에스디커뮤니, 울산)처용서림 부산)영광도서, 부산)목민서관, 구미)춘양당, 안동)교학사, 창원)창원서적, 김해)가야서점, 마산)대신서점, 진주)진주문고, 광주)충장서림, 전주)홍지서림, 전주)웅진서적, 전주)민중서관, 군산)군일서점, 익산)대한서림, 순천)중앙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가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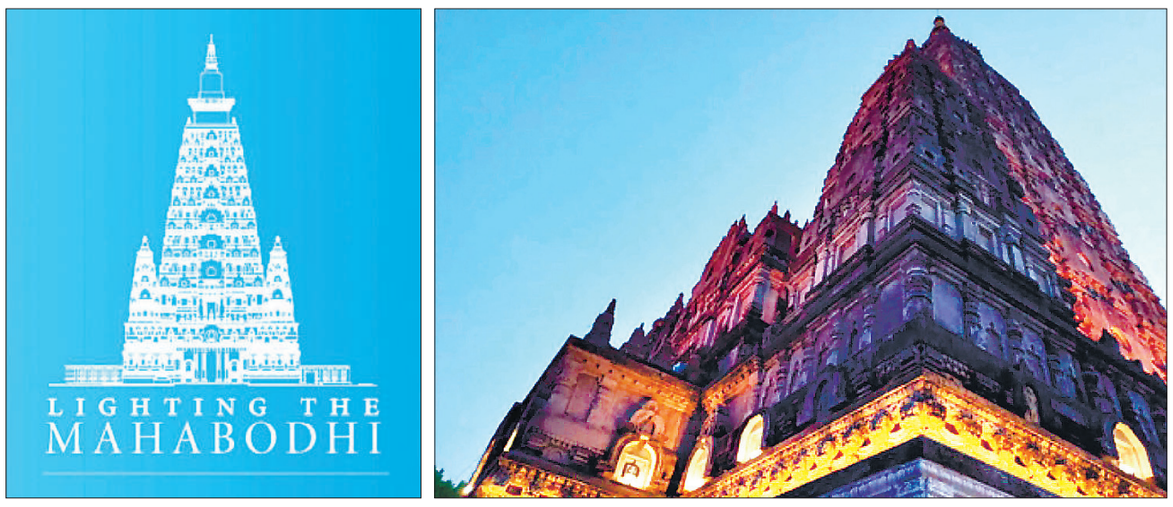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마하보디 사원, 웅장한 빛으로 장엄

종사르 켄체 린포체 추진
'마하보디의 빛' 프로젝트
거대조명 설치 작업 본격화
10월 완공해 대중공개 계획



마하보디사원을 최첨단 · 친환경 빛으로 장엄하는 프로젝트가 올 10월 대중에 공개된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박정현 객원기자

저명한 부탄 승려이자 영화 제작자 겸 작가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Dzongsar Jamyang Khyentse Rinpoche)가 설립한 '켄체 재단'은 '마하보디의 빛'(Lighting the Mahabodhi)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마하보디의 빛'은 인도 보드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을 최첨단 · 친환경 조명 시스템으로 장식하는 프로젝트다. 켄체 재단은 최근 이를 위한 모금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 10월께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4일(현지시간)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tst door)에 따르면, 켄체 재단은 약 1년 전 착수한 '마하보디의 빛'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이 모금을 통해 전액 확보됐다"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작업에 착수, 올 10월 장대한 기념식을 갖고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하보디의 빛'은 켄체 재단과 바나(Vana)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싯다르타 인텐트 인디아(Siddhartha's Intent India)가 진행한다. 싯다르타 인텐트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1986년 설립한 국제적 불교 단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번역 및 편집하고 이를 배포, 보관 · 연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례없는 불교 성전 조명 설치 사업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성전 내 오래된 조명과 전기 시스템을 정비해 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지속가능한 불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다. 앞서 2015년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2017년 보드가야 사원 관리위원회(the Bodh Gaya Temple Management Committee)와 가야 지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켄체 재단은 지난해 3월 26일 해당 사업에 공식 착수했다.

켄체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불교의 가장 신성한 성전 인근에 2500m의 참호를 팠다. 여기에 3000m 높이의 이중벽 파형관, 400개의 고효율 LED 전구, 100m 높이의 LED 스트립 조명, 60개의 코스트톱 조명, 125개의 멘홀과 뚜껑, 1만6000m 높이의 전기 케이블과 방화선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 훨씬 더 고품질, 최첨단, 친환경적 전기와 조명 시스템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이곳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켄체 재단은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켄트 재단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월에 세계적 수준의 전기 인프라와 마하보디 사원 내 모든 부분을 비추는 600개의 조명이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빛이 평화와 조화, 번영, 자연과 하나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상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해당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사랑받는 마음, 항상 빛을 발하는 마음을 바친다"며 "마하보디 사원에 설치되는 조명도 그러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교 성지순례지 중 가장 신성한 곳으로 꼽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전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부다가야에는 부처님이 정진했던 보리수나무 터를 비롯해 7개의 불교 성지가 있다.

일본 불교계, 관욕 등 봉축 행사도 생중계

참배 · 예불 원격으로 진행
자택에서 사불 · 사경 권유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선 정부가 '3밀(밀폐공간 · 밀집공간 · 밀접접촉)'을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한주 간 일본불교계의 다양한 노력을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4월 27일 마이니치 신문은 특별한 관욕식에 대해 보도했다. 기타큐슈시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사찰 에이묘지(永明寺)의 주지인 마츠자키 치카이 스님은 준비했던 관욕식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트위터를 이용, "리트윗(트위터를 공유하는 것)의 수만큼 주지인 내가 아기 부처님에게 관욕식을 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원격으로 관욕식을 생중계한 치카이 스님(좌) 사진출처= 유튜브, 야후재팬 뉴스

독특한 발상에 화제가 된 게시물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총 리트윗은 3만 2,551회를 기록했다. 치카이 스님은 "이 숫자만큼 관욕식을 모두 봉행하겠다"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관욕이 1,600회를 넘어가면서, 인근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관욕식을 돕기 위해 참석, 이틀에 걸쳐 총 13시간의 관욕식을 마쳤다.

한편 28일 '야후 재팬 뉴스'는 고베시에 소재한 진언종의 고찰 스마데라(須磨寺)의 원격 기도봉행 소식을 전했다. 스마데라측은 사찰의 홈페이지에 A4 2장 분량의 사경용지를 올리고 사경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데라의 부주지 코이케 요진 스님은 "옛날 헤이안 시대에 역병이 돌자 코보(弘法)대사가 일왕에게 사경을 하도록 권하고, 그 경전을 불전에 올려 병을 물리쳤다는 고사가 있다. 사경을 마친 경전을 스마데라에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를 불전에 올리고 매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축원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비슷한 예로,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 콘고부지(金剛峰寺)측은 사불을 권유했다. 색칠을 마친 사불용지를 콘고부지로 보내면, 콘코부지에서 이를 모아 하나의 만다라로 만들어 불전에 올리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할 예정이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3일 이바라키현에 소재한 조동종 사찰 다이오인(大雄院)의 예를 보보도했다. 다이오인은 올해 개산 55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결국 모두 취소됐다.

이에 다이오인의 주지 미나미 슈텐 스님은 역시 홈페이지에 사경과 사불 용지를 게시하고, 이를 완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동참자에게는 다이오인 개산 550주년 기념품과 참배를 인증하는 주인(朱印)을 답례로 보내준다. 역시 인터넷 상에서 화제를 몰며 일본 전국에서 동참자가 나오고 있다. 다이오인 측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발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사찰 '호신부 마스크' 제작

착용자 심신 안정까지 고려
10만장 이상 국 · 내외 배포



직접 제작한 호신부 마스크를 설명하는 스님. 사진출처=닛폰 뉴스 네트워크 방송화면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태국에서는 사찰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착용자의 심신 안정까지 생각한 호신부 마스크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4월 27일 '야후 재팬 뉴스' '닛폰 뉴스 네트워크' 등은 사찰에서 제작하는 호신부 마스크를 보도했다.

태국 중부의 나콘파톰(Nakon Pathom)시에 소재한 왓 파이롬 사원. 이곳에서는 마스크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스크 제작이 한창이다. 마스크는 제작에서 포장까지 모두 사찰의 사부대중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왓 파이롬 사원측은 "태국 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직접 제작에 나섰다. 이 천들은 재활용 플라스틱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환경보호적인 면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가사와 동일한 황색으로만 제작하던 마스크는 대중들의 수요에 따라 붉은 색과 카키색 등의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의 마스크는 마스크의 정면에 보호주(paritta)가 인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마스크의 좌우에 악령을 물리친다고 하는 야크샤(yaksha; 야차)의 모습이, 가운데에는 보호주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그려져 있다.

사원측은 "어려움에 인내하고, 멀리 나아가서는 안전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가 담겼다"며 보호주의 내용을 설명했다. 완성된 마스크들은 대중스님들의 축복기도를 마치고 배포된다.

현재 왓 파이롬 사원의 작업장에선 10만장 이상의 마스크가 제작 됐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 마스크의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태국인 불교도들의 요청에 응해 해외에도 보내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불교협, 온라인 베삭데이

불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유튜브로 관욕식 영상 등 제공


말레이시아 불교협회가 온라인 베삭데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해 화제다. 사진출처=더스타

말레이시아 불교 협회(the Malaysian Buddhist Association, MBA)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삭데이 행사가 취소되자,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의 영자 신문 더 스타(The star)의 5월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MBA는 '손에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한 공생'이라는 제목의 베삭데이 기념 특별 불교 교육 시리즈물과 함께 관욕식 영상을 제작했다.

지준(Ji Zun) MBA 명예총재는 특별 불교 교육 시리즈물과 관련해 "8개의 베삭데이 관련 주제를 공유하기 위해 다년 간 다르마를 연구해 온 저명한 승려들을 특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8개 주제는 '불교에서 3가지 주목할 만한 기념 행사' '불교 달력 계산법' '불교의 깃발과 숭고한 8가지의 길' '베삭데이 기념' '부처님의 친절한 정신' '사원과 행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등이다.

또한 MBA는 6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베삭데이 기념 부처님 관욕식과 찬불식을 방송했다. 베삭데이 당일인 7일(현지시간)에는 생방송 인터뷰도 진행됐다.

지준 MBA 명예총재는 "대중들은 직접 관욕식을 하기 위해 사찰에 찾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게재한 동영상들을 통해 성스러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불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 · 법 · 승 삼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키우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관욕식을 하면서 전 세계 평화와 코로나19의 박멸을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현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관상 최고위과정



원장/책임교수 爽廈(석하) 소재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논설위원,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역임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동방대학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성공과 실패시기 규칙적으로 예측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창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0기) 5/6, 5/13(수)개강특강
나갈때와 물러날 때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지동설 명리학)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 마스터까지 무료 반복 수강
※수업 매주 수(水) 18:30 ~ 21:00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7기) 5/11, 5/18(월)개강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서백도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풍수도 논리로 푼다. 자연과학 풍수지리
※수업 매주 월(月) 18:30 ~ 21:00

관상 최고위과정 2기
(2기) 5/7, 5/14(목)개강특강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술 관상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
행운 부르는 좋은 인상 만들기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주임교수 노승우 | 초빙교수 신기원 | 지도교수 이문학 | 지도교수 정민이

실제 얼굴 모습과 영상, 사진자료 활용한 사례 위주 수업
※수업 매주 목(木) 18:30 ~ 21:00

각 과정 2학기 수업 민간자격증 과정 겸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GFCA 최고위 사무국 02-3443-4984 www.gfca.kr
YouTube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539년 경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맥적산 석굴 127굴 감실 벽에 도해된 '서방정토변상도'의 모습. 동진 승려 지도림의 〈아미타불상찬〉의 내용을 재현한 사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에는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시립하고 있으며, 양측에는 칠보로 장식한 누각과 여러 보살과 청중들이 운집해 있다.



4세기 이후 정토신앙과 만난 아미타불도상은 한국과 중국서 계승 · 발전됐다. 근대시기 조성된 통도사의 '아미타극락구품도'에 나타난 아치 다리, 호선무 보살 등의 도상이 이를 보여준다.

서쪽 부처 아미타불 '극락' 내보이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⑩ 아미타여래 도상들

아미타불 주석 중인 '극락정토'
善者가 사후에 가는 이상세계

'아미타상찬' 펴낸 동진 지도림
畫師에게 극락정토 구현 주문해
4세기 後 관련 도상 정립 시작
페르시아 등 다른 문화권 영향도

지난 글에서는 미륵부처가 이 땅에 나투시면 속세의 인간들이 맞이하게 될 최고의 이상세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륵부처가 하생하시기 전에 생을 끝낸 사람들의 혼은 지옥 혹은 극락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

'극락'(極樂, Sukhavati, 蘇訶嚩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끝없는 즐거움의 세계' 혹은 '최고의 아름다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불교에서 극락은 무량의 광명을 뜻하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계신 서방정토(西方淨土)로, 살아서 선을 행한 자가 사후에 가는 천상의 세계라고 한다.

아미타여래는 〈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經)〉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의 세 경전을 도상학적 근거로 하여 아미타정토변상도 · 관경변상도 · 아미타내영도 등이 회화나 조각으로 묘사되어져 왔다. 관련 경전에서 아미타여래의 정토는 서방 십만억의 국토를 넘은 곳에 있는데, 이 세계는 법장보살이 48원을 달성하여 아미타불이 된 후 건설했다는 이상향이다. 이러한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는 안락세계(安樂世界), 안양국(安養國), 서방정토, 아미타정토, 아미타극락정토, 극락정토, 무량청정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시대 · 지역 · 국적에 따라 도상이 변화하면서 표현되어 왔을 정도로 친숙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극락세계에 주처하는 아미타여래에 관한 정토신앙은 중국에 후한양진(後漢兩晋)시기에 전래되어 동진(東晋)의 혜원(慧远, 334~416)에 의해 일반 민중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위(北魏)말기 담란(曇鸞)이 무량수경의 십념을 염불하면서 칭명염불의 효과를 알렸으며, 그의 제자 도작(道綽)에 의해 수~초당시기에 정토교가 일반 민중에까지 전파되었다. 도작의 염불교화가 북방의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면, 이를 문화의 중심인 장안에까지 유행시킨 사람은 선도(善導, 613~681)이다.

위와 같은 아미타신앙의 유행을 반영한 현존 가장 이른 사례가 병령사(炳靈寺) 169굴의 '아미타불상'이다. 169굴의 아미타불상은 건흥원년(建弘元年, 420년)에 제작되었다는 제작년도와 '아미타불'이라는 존명, 좌우의 협시보살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에 관해서도 묵서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아미타여래와 협시보살을 표현한 것은 명확하지만, 극락의 전경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다.

한편 후한 말기 중국에 유입된 정토신앙은 예배의 대상인 아미타여래의 구현을 필요로 하였는데, 동진(東晋)의 승려 지도림(支道林, 314~366)이 화사에게 청하여 아미타부처님과 그 세계를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주목된다. 비록 이 그림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가 편찬한 〈아미타불상찬(阿彌陀佛像贊)〉에 "서방의 나라 이름은 안양국이며, 그곳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여래이시다. 진나라 말에는 무량수라고도 칭하였다. 남녀가 연꽃의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지는 않는다. 집은 궁전이며 칠보로 장식되지만, 장인들이 만들지 않고 스스로 지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미 4세기 중엽에 아미타의 극락세계에 관한 이미지가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림의 〈아미타불상찬〉의 내용을 재현한 사례 중에서 현존 가장 이른 것이 서위시기인 대략 539년경에 조영된 맥적산(麥積山)석굴 127굴의 감실 벽에 도해된 '서방정토변상도'이다. 화면은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시립하고 있으며, 양측에는 칠보로 장식한 누각과 여러 보살과 청중들이 운집해 있다. 더불어 전각의 양쪽에 기악대와 무희가 묘사되어 있고, 아래에는 연꽃과 새가 칠보로 채워진 연못 위를 장식하고 있다. 또한 북제(北齊, 550~577)시기에 조영된 남향당산(南響堂山)석굴의 '아미타정토도'는 부조로 표현되었지만, 중국에서 극락정토가 도해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6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초당시기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 돈황(敦煌) 220굴의 남벽에 도해된 '아미타정토변상도'는 도상과 화면의 구성이 앞의 사례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앞 시기부터 묘사되었던 칠보로 장식한 누각과 연못, 기악대 이외에 기악대 사이 카페트 위에서 둥그렇게 회전하는 춤을 추는 무희의 모습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춤은 페르시아계 호인(胡人)들이 춘다는 '호선무(胡旋舞)'를 묘사한 것으로 호인들의 석관장식이나 당삼채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아미타정토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화면구성을 완성한 시기는 대략 성당시기로, 그 대표적인 예가 8세기 경 제작된 돈황 148굴 북벽의 '관무량수경변상도(觀無量壽經變相圖)'이다. 화면의 중앙에는 설법상의 아미타여래가 위치하며 그 좌우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 묘사되어 있고, 주위에는 청문찬탄하는 많은 성중을 배치하고 있다. 또 배경에는 보루각을 두르고, 허공단에는 여러 무리의 공양 비천과 악기가 날고 있다. 전경에는 보화가 흐르는 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연화 화생하는 왕생자와 금어 및 가릉빈가와 공명조가 묘사되어 있으며, 연못 위에는 아치형 다리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무대에는 카페트 위에서 호선무를 추는 보살과 악기를 연주하는 무악대가 장엄되어 있다.

이후 극락정토는 위와 같은 도상으로 화면을 구성하며, 한국과 중국의 근대기까지도 이러한 구성으로 극락의 세계가 묘사되어져 왔다.

〈불설무량수경〉과 〈불설아미타경〉에서 묘사하는 극락정토는 칠보로 이루어진 불국토로서 아름다운 궁전과 누각, 황금연못이 있으며, 악기, 가릉빈가, 공명조 등의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청정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대 이후에 제작된 '아미타정토도'는 소의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호선무를 추는 보살, 연못 위에 놓여진 아치형 다리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미타정토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중국의 전통건축과 불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및 타문화와의 교섭과 수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당대에 정형화된 '아미타정토도'에 묘사된 수조(水鳥), 호선무를 추는 보살, 사산조 보관을 쓴 기악보살, 그리고 망자가 사후에 극락의 세계에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다리 등에서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대에 특히 유행한 호풍(胡風)의 영향으로 더 깊게 중국의 문화에 침투해 왔고, 유행하던 정토사상에까지 유입되어 아미타정토도가 초당과 성당을 거치면서 정형화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처럼 정형화된 '아미타극락정토도'를 한국과 중국에서 계승하여 발전하였다고 생각한다. 근대까지도 조선 불화의 화사들은 극락정토에 묘사된 아치형의 다리, 수조, 호선무를 추는 보살 등의 도상을 답습해 오고 있는데, 일례로 한국의 근대시기에 제작된 통도사의 〈아미타극락구품도(阿彌陀極樂九品圖)〉에 이러한 도상들이 오롯이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래된 페르시아의 종교와 미술은 불교의 아미타극락정토에 차용되어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어져 내려와 조선의 근대불화에까지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불교의 세계성과 포용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이성 정치 바탕 '연기법'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⑩ 연기법과 자기중심 정치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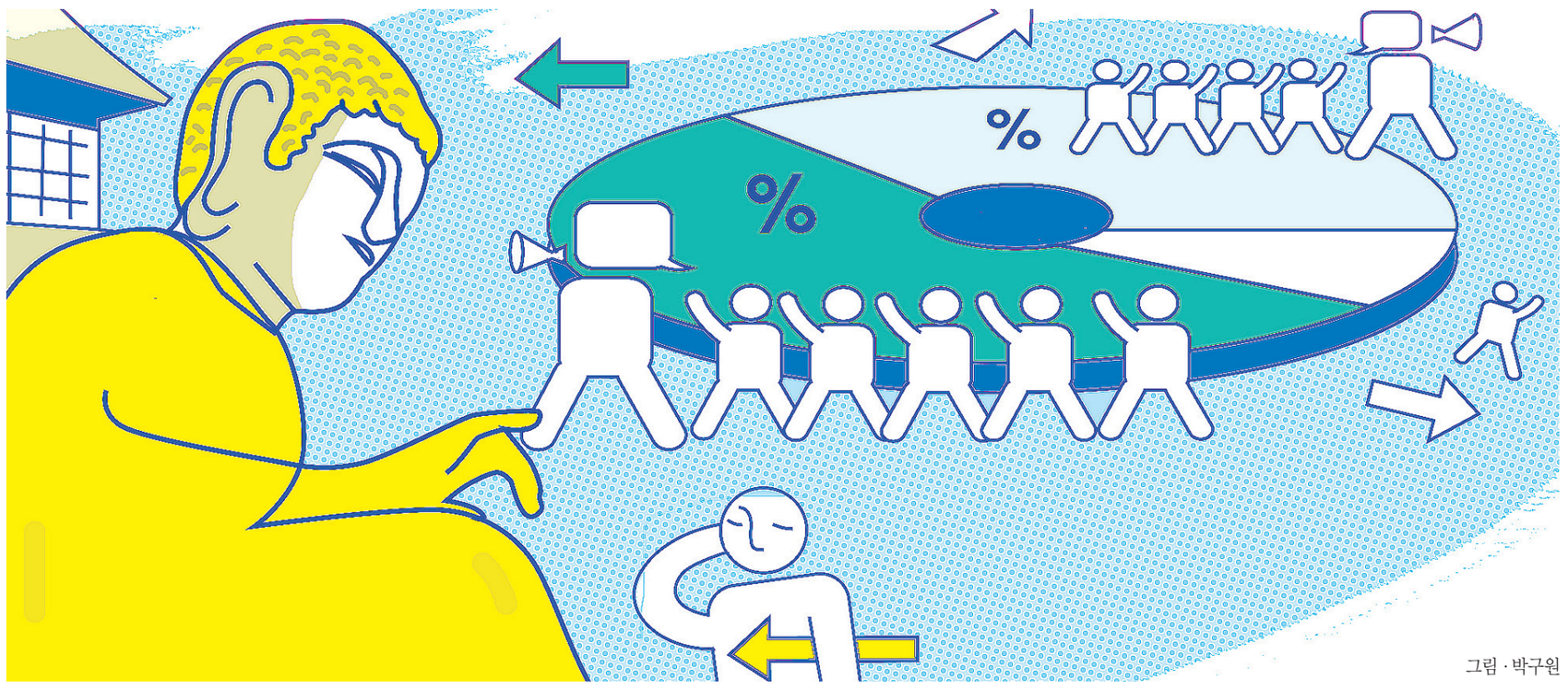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정치인과 국민은 과연 이성적 존재인가?

미국에서 민주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공화당 지지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이런 나쁜 놈' 이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화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민주당 지지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이런 나쁜 놈'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지지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반응이었음은 물론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우리는 '내로남불' 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치인만 그런게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위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다. 인간은 감성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물으면 그때서야 이성적으로 설명한다. 흔히 정치를 국민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국민 수준도 별거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국민 평균보다 훨씬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오십보 백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때가 많다.

앞의 실험에서 뇌과학자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답변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측정했다.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할 것 없이 모두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아니라 감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이성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감성의 작용이었던 것이다. 이건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여서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토록 열을 내서 비판하고 옹호하던 것이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감성의 작용이라니 어쩌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는게 아닐까?

오랫동안 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여지없이 잘못임을 낱낱이 드러낸다. 연구 결과가 나올 수록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정도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행동경제학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인간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지 보여주었다. 어차피 싸움판인 정치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냉혹한 돈 계산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제판은 안 그럴줄 알았는데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객관성을 추구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세상에서 사물과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아니 객관성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모두가 주관이 개입된 것이 아닐까?

통계학 과목 첫 수업에 교수가 들어와서 던진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통계는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를 놓고 아직도 학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케인즈의 이론에 의한 뉴딜 정책의 성공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둘다 통계수치를 가지고 경제모델을 동원하여 현란하게 분석한 결과이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통계수치와 경제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도 보여줄 수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이익에 기여했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가져다 쓸 통계와 이론은 넘쳐난다. 동일한 통계수치와 이론을 가지고 특정 정책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통계수치마저 주관이 개입된다. 어떤 회사는 '출퇴근 버스 서비스' 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출퇴근 수당으로 지불한다. 출퇴근 수당으로 지불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지만 버스 서비스로 인한 비용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 서비스 비용을 인건비로 포함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논쟁은 모든 통계수치에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다.

정책평가라는 학문영역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객관적으로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할 수 있구나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 정책평가는 결코 객관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편견, 선입관, 아집, 독선, 분노, 슬픔, 사랑, 애착,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에게 객관적 평가란 불가능하다. 원래 인간에게 객관적 평가란 불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인정하는 성공하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 정책평가란 전문가, 언론, 국민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

'객관적' 판단 이면 속에
인간 주관적 개입 있어
삼독(三毒) 인정 연기법
주관 고려, 합리적 판단

내는 여론의 흐름에 불과하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

주장은 모두가 주관적이다

우리는 과학적 주장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반된 과학적 주장을 들어보면 과연 객관적 사실이라는게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 때 암초에 직면한다. 새만금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계속되어 완공에 이른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 새만금 사업 반대의견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잘못된 사업 같았고 당장 중단해야 하는 사업 같았다. 그런데 곧 이어 찬성 의견을 듣자 나를 포함한 수 십명의 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반대의견을 들었을 때는 반대의견이 타당한 것 같았는데 찬성의견을 듣자 찬성의견이 타당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의견 모두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과학적 용어와 수치로 정교하게 전개된 논리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누구 주장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실토하였다.

우리는 수치로 전개되는 논리는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수치에는 많은 가정과 논리의 비약이 개입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억측과 수치가 동원되고 주관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포장된다.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객관으로 포장된 수많은 사실은 사실이라는 이름의 주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건비라는 수치 뒤에는 버스 서비스 수당에 관한 인간의 주관이 개입된다.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환경오염 통계에는 반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과 찬성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의도하지 않은 조작을 만들어낸다.

신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기업은 시장조사를 한다. 어떤 여성잡지 회사에서 여성잡지가 스캔들이나 가십에 집중하는 저질 출판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고급 교양 잡지를 기획했다.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수준 높은 교양잡지라면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대부분이었다. 그걸 믿고 수준 높은 새 잡지를 발행했는데 뜻밖에도 소비자가 외면하여 실패했다. 과거에는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라는 시장조사였는데 요즘은 이런 식의 직설적인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걸까?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끌린다는 '나쁜 여자 신드롬, 나쁜 남자 신드롬' 이 있다. 말로는 수준 높은 교양잡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수준 낮은 선정적인 잡지에 끌리는게 인간이다. 물론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지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보다 매력 있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재미 없고 끌리는게 없다.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선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치란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생하는 필요악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연기법을 알아야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세상의 모든 정치현상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임시적으로 발생할 뿐인데 한 두가지 원인이나 한 두가지 조건에만 함몰되는게 인간이다. 정치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직 임시적인 현상일 뿐인데 영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도그마처럼 부여잡는게 인간이다.

인지활동 중 애착이 판단 흐려

부처님은 인간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三毒)이 있어 전도망상된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인간의 인지기관이 외부의 대상에 접촉하여 인지활동을 하면 애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접해도 인간은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좋은 감정이나 싫은 감정을 내므로 탐욕과 애착이 발생한다. 인간은 따라서 정치현상에 대해서도 이성적일 수 없고 비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없다.

인간은 외부의 정보와 자료에 감각기관이 접촉하면 뇌 속에서 정보와 자료를 처리한다. 정보와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뇌 속에 저장된 이미지, 기억 등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 났으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는 정보와 자료 처리과정을 좌우한다. 불교는 인간을 색수상행식의 다섯 요소로 구성된 분산시스템으로 이해하며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불교는 불교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초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불교의 인간관은 자연과학의 최근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사회과학의 가장 최근의 관점과 부합한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문제로 인한 고통해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 불교의 지혜에 의존해볼만하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일관성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에 대해 불교는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지혜가 궁금하지 않은가?

〈고려대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사 언행·문답 '문학'이 되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⑩ 간화선의 근원을 찾아
– 송고문학과 국가불교



중국 선종 사찰의 경우 객당에 세워져 있다. 중국 한 선종 사찰의 객당 달마조사 진영에도 일반 청규와 해당 사찰의 당규(堂規)가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나라 때는 수많은 선자(禪者)들이 등장했고, 활발하게 수행했다. 이러던 선이 송나라로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가지인데, 송고문학의 발달과 선종 사찰이 국가불교화 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송고문학에 등장한 용어부터 살펴보자.

'고칙(古則)'이란 옛 조사의 선문답이 보편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고인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공안(公案)'이란 단어는 '재판에서 판례에 견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고(頌古)'는 당대 선승들의 언행과 선문답의 취지(趣旨)나 어기(語氣)에 대하여 게송이나 송으로 간결하게 독자적인 해석을 하여 선종의 의미를 표방해 널리 알리는 것이다. 송고는 선문학의 내면성을 깊이 표현한 것으로 훌륭한 문학이 선에 연결되고, 선수행이 훌륭한 문학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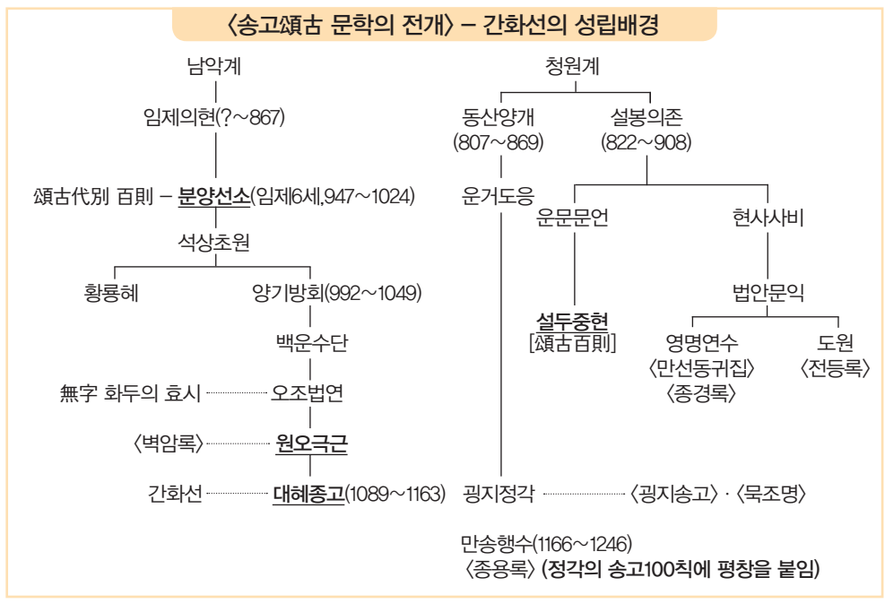
염고(拈古)는 고칙 공안을 염롱(拈弄)한 것으로, 간명 직절하게 비평한 것이다. 대어(代語)는 옛 사람의 문답 대신에 제2인칭에 자기의 해답을 부여하는 것이며, 별어(別語)는 또 다른 대답을 붙이는 것이다.

(1) 송고문학의 발달

먼저 문자선의 발달을 보자. 당대에 선자들의 활발발한 실참이었던 반면 송나라 선자들은 고칙 공안에 대해 해석하고, 감상하고 즐기며, 전승하는 일에 안주했다. 당대의 시퍼렇게 살아 숨 쉬던 선이 퇴보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정확할 듯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백 여년이 지나 부파불교(아비달마)가 발달했는데, 불법이 정교하고 정립되는 것이었지 실천적인 면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송대의 송고문학은 당대의 선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라고 보면 맞을 듯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선이 예술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달하고, 사대부들에게도 널리 보편화되었다. 또한 송고문학의 발달은 곧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송고문학의 발달사를 보자.

선사 어록, 게송으로 발달
문학·선 연결된 '송고문학'
간화선 발전에도 영향 줘

수행적으로 활발발했던 禪
제도적으로는 '국가불교화'



진각국사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술할 때 저본이 되었다. 이후 승려 과거 시험 및 선종선禪宗選의 시험과목으로도 채택되었다.

도원의 〈경덕전등록〉

법안종의 승천도원 선사가 1004년에 〈경덕전등록〉 30권을 완성시켰다. 〈경덕전등록〉에는 과거 7불로부터 서천(西天) 28대, 동토 6조를 거쳐 법안 문익(885~958)에 이르기까지 1701명 선사(원래는 951명만 전함)들의 기연과 문답이 언급되어 있다. 즉 선시와 오도송·선문의 규칙·법계(法系)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어 논 전개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고려 분양 선소의 〈송고 100칙〉

〈경덕전등록〉 이후 바로 이어서 분양 선소(947~1024)의 〈선현일백칙(先賢一百則)〉이 등장하였다. 선소는 도원의 〈경덕전등록〉에서 100칙의 기연을 뽑아내어 여기에 송과 염을 가한 〈선현일백칙(先賢一百則)〉과 〈대별일백칙(代別一百則)〉 및 스스로 지은 공안 100칙을 모아 〈송고대별삼백책(頌古代別三百則)〉을 편찬하였다. 이것이 〈송고 100칙〉의 효시가 되었다.

설두 중현의 〈송고 100칙〉

이어서 설두 중현(980~1052)이 〈송고 100칙〉을 완성시켰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선종의 대표적인 깨달음의 기연(機緣) 100가지를 집대성하여 공안을 제시하는 본칙(本則)과 공안의 대의를 게송으로 정리한 중현의 송(頌)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앞의 선소에 비해 매우 뛰어난 문장으로 시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도원의 〈경덕전등록〉에서 한층 발전되었으며, 송대 문자선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현의 송고는 시 문학적인 가치로도 훌륭해 〈벽암록〉이 나오기 전까지 사대부들에게 애독되었다.

한편 조동종계에서도 투자 의청(1032~1083)과 단하 자순(1064~1117)의 〈송고 100칙〉이 나왔다.

원오 극근의 〈벽암록〉

이렇게 점차 독자적인 해석을 붙이자,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른바 평창(評唱, 해석)이라는 강의 형태가 생겼다. 원오 극근은 설두 중현의 〈송고 100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텍스트로 하여 강의하였다. 그런 뒤에 수시(垂示, 서언)·착어(著語, 짧은 비평)·평창(評唱, 講評과 같은 성격의 해석)을 첨부하여 〈벽암록〉을 저술하였다. 〈벽암록〉은 '종문(宗門)의 제일서(第一書)'라고 칭할 만큼 선종의 대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안집이다. 이와 같이 이전 '송고문학'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대혜 종고의 간화선이다.

〈벽암록〉에 영향을 받아 조동종에서도 〈종용록〉 〈공곡집〉 〈허당집〉 등 비슷한 형태의 공안집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종용록〉은 굉지 정각의 송고에 만송 행수(1166~1246)가 평창한 것이다.

(2) 선종 사찰의 국가불교화

선종 사찰이 5산 10찰제로 국가불교화된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당나라 때, 자유롭고 활발발하게 빛나던 선사상과 선이 국가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5산 10찰제란 사찰에 등급을 매기고 산의 이름이나 사찰의 호를 더하여 국가 기도도량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나라 말기부터 나라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황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힘을 잃었고, 송대로 들어서 주변 여러 이민족의 압박과 침입을 끊임없이 받고 있던 터라 중국 한족의 긍지가 상실되었다. 자연스럽게 당나라 때와는 다른 국수주의적인 형태를 띠면서 사찰의 힘을 이용해 국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남북조시대나 당대에도 황족의 복을 빌어주는 사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선사로서 대통신수(606~706)는 측천무후·중종·예종 등 3대 황제의 예경을 받고, 당시 서안과 낙양의 불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또한 혜능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하택 신회(670~762)는 향수전(香水錢, 승려에게 도첩을 판매)을 팔아 황제에게 군자금을 대어주었다.

5산 10찰은 송대의 수도가 개봉(開封)과 남경(南京)이었음을 감안할 때, 남송의 선은 남방 강동(절강성·안휘성·복건성)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주지가 개당설법에서 황제의 성수(聖壽)를 기원하는 도량이 되었고, 왕과 왕실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었다.

5산 10찰에 역임한 주지들의 어록에는 반드시 축성화(祝聖華)가 있는 다음에 그의 법문이 있다. 이는 선종 어록의 형식이 되었다. 이 점은 점차 관례화되어 연중행사로 정착되어 갔다. 원대에 이르러 선원의 생활규율과 국가주의적인 색깔이 짙은 〈칙수백장청규〉에는 공식적으로 성문화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 무렵, 교종에서도 〈교원청규〉가 만들어졌고, 율종에서도 〈율원청규〉가 등장하였다. 교종과 율종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대혜 종고의 간화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불교화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우리 법당 시설은 아직 쓸만해! ....

수 없이 겪는 현장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스님들과 본사 염불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보며 스님들의 방송수준의 한계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 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20년전 본사를 서울 낙원동에서 영남사찰 시설 교통중심지인 김해IC로 옮긴 후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사찰 형편 따라, 규모 따라 입소문을 타고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

왕실 귀족·승려, '용봉단차' '백차' 선호



박동춘의

고려茶문화, 그 아름다움

⑩ 고려시대 유행한 차

승원, 차문화 향연 이끈 공간
차수요 확충 위해 '다소' 운영
전문인력 배치돼 차 본격제작
고려시대 최고급 단차 유행해
만드는 법·특징 '다시'에 담겨



백차를 만드는 과정 중 절구에 찧어낸 차를 동이에 갈아내는 모습.



일창(창 모양의 여린 잎) 형태의 찻잎.

고려시대 승원은 차 문화의 향연이 벌어진 공간이었으며, 이를 이끈 건 수행승들이었다. 특히 고려 시대 사찰 주변에 형성된 다촌(茶村)은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차나무의 속성 때문이다.

고려는 다소(茶所)를 설정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다소가 어느 시기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군현을 통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특수한 운영 단위를 따로 설정한 것과 맥을 같이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소가 향, 부곡과 소, 장, 처 등으로 분류해서 특정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소의 설정은 왕실 귀족, 관료 문인들의 차수요 확충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다소는 차를 만드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왕실 귀족이 즐기는 차를 만들었다. 다소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조선 초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가 있다. 이 문헌에 의하면 작설차를 토공(土貢)으로 올린 지역은 경상도 경주부, 밀양 도호부, 울주, 진주목, 함양군, 고성현, 하동현, 산음현, 진해현 등인데, 밀양의 엄광사에서 작설차가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토공으로 작설차를 올린 곳은 경상도보다 전라도 지역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주부에서는 고부군, 옥구현, 부안현, 정읍현이고, 나주목에서는 나주목 영암군, 영광군, 강진현, 무장현, 함평현, 남평현, 무안현, 고창현, 흥덕현, 장성현 등이 있고, 남원 도호부에서는 순창군, 구례현, 광양현 등이 있다.

특히 장흥도호부에는 다소가 13곳이 있다고 하였고, 장흥도호부에 속한 담양도호부, 순천도호부, 무진군, 보성군, 낙안군, 고흥현, 동복현, 진원현 등에서 차를 공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초기까지 다소(茶所)가 있었던 곳은 장흥도호부에 속한 요량, 수태, 칠백유, 정산, 가을평, 운고, 정화, 창거, 향여, 웅점, 가좌, 거개, 안칙곡 등이고, 동복현 와지다공리에도 다소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된 토공 지역은 고려 시대에도 차를 생산하던 주요지역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다촌과 다소가 분포되었던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려말선초(麗末鮮初)까지 차 주산지는 전라도였고 특히 장흥도호부가 주요한 작설차 토공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이미 경상도 지역 일부에서 차가 생산되지 않았던 정황을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다원(茶園)〉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나라에 바치는 차가 우리 군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마다 백성에게 차를 부과한다. 백성들은 차를 사 올 돈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사오는데, 대략 쌀 한 말에 차 한 홉을 사 왔다.(上供茶 不產本郡 每歲賦之於民 民持價 買諸全羅道 率米一斗得一合)'

윗글에 따르면, 이미 고려가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 차를 토공으로 올렸던 경상도 지역에서는 차가 이미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차의 주요산지였던 전라도 지역에서는 차가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유통도 되고 있었는데, 그 값이 싸지 않았던 듯하다. 아무튼 다소와 관련된 흔적은 조선 전기까지도 남아 있었다.

다시 고려시대 차 문화로 돌아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품의 차를 생산했던 시기는 12세기이다.

북송에서도 황제용 차를 생산하는 어원이 특별 관리되어 용봉단차(龍鳳團茶)처럼 최상급의 단차(團茶)를 만들었다. 이런 차의 제다 기법은 송나라를 내왕하던 승려나 사신, 그리고 송 황실에서 고려 왕실에 하사된 차를 통해 그 기술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 귀족, 승려는 물론 일부 관료 문인들까지도 송에서 유행하던 용봉단차나 백차(白茶)가 유행하였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유행했던 단차(團茶)란 어떤 차일까. 단차라는 명칭은 차의 모양이 다식처럼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단차라고 한 것이다. 바로 둥근 모양이란 뜻이다. 10세기 이후는 단차의 시대였다. 송이나 고려가 이 같은 유형의 차를 즐겼는데 최고급 단차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북송 때 조여려(趙汝礪)의 〈북원별록(北苑別錄)〉에는 단차의 공정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대략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단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급의 차 싹을 얻어야 한다. 이는 매 발톱처럼 작은 차 싹으로 만들고 용봉단차는 매 발톱, 혹은 매 부리만한 차 싹의 속대만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수아(水芽)이다.

고려 문인의 다시(茶詩)에도 매 부리, 노란 움 같은 어린 차 싹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운봉에 주석하신 장로 규 선사에게(雲峰住老珪禪師)〉에서 "시냇가 차 싹, 이른 봄에 싹 터 황금 같은 노란 움이 눈 속에서 돋았네(故敎溪茗先春萌 抽出金芽殘雪裏)"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 이연종(李衍宗)의 〈박충좌(朴忠佐)가 차를 보냈기에 감사하여(謝朴恥菴惠茶)〉에도 "용암 벼랑과 봉산 기슭 산승 따라 대숲에서 매 부리 같은 어린 차 싹을 땄네. 화전에 차를 덖어보니 최고의 품질이라(龍巖巖畔鳳山麓 竹裏隨僧摘鷹觜 火前試焙云最佳)"라고 읊은 바가 있다.

다시 백차(白茶)를 만드는 공정을 살펴보면, 수아나 매 부리, 노란 움처럼 여린 차 싹을 딴 후, 차 싹에 붙어 있는 백합(白合: 차 싹을 싸고 있는 겉잎)이나 줄기를 모두 따 낸 차 싹을 시루에 넣어 증기로 쪄낸 다음 자다(榨茶) 공정을 거친다. 자다(榨茶) 라는 공정을 거치는 연유는 쪄낸 차 싹의 물기와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다. 그 과정을 〈북원별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차 싹을 다 익힌 것을 다황(茶黃)이라 한다. 여러 차례 물을 뿌려 (익힌 차 싹을)식힌다. 바야흐로 소착에 올려놓고 물기를 제거하며 또 대착에 넣고 고를 짠다. 먼저 면백으로 싸고 죽순 피로 묶은 연후 대착에 넣고 누른다. 한 밤중에 이르러서 꺼내 고르게 주물러서 다시 대착에 넣는데 이것을 번착(翻榨)이라 한다.(茶既熟 謂之茶黃 須淋洗數過[欲其冷也] 方上小榨以去其水 又入大榨出其膏 先是包以布帛 束以竹皮 然後入大榨壓之至中夜 取出揉匀 復如前入榨 謂之翻榨)'

윗글에 따르면, 다 익힌 차 싹은 과황을 거쳤다. 과황을 거친 차는 물을 뿌려 뜨거운 열기를 식혀야 한다. 만약 차를 뜨거운 상태로 두면 누렇게 변질되어 생기를 잃는다.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것이다. 만약 열기로 인해 차 싹이 누렇게 변하면 생기가 사라짐에 따라 싱그러운 차의 맛과 색이 변한다.

이런 차는 최고급의 등급에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소착과 대착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소착은 차 싹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함이고, 대착은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다. 소착과 대착을 거친 차는 번착을 거치는데, 이는 차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공정 과정은 하룻밤을 넘지 않아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백차의 공정에서 소착, 대착, 번착의 과정을 거친 차는 엷은 녹빛과 흰빛을 띠는데, 마치 마른 대나무 잎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는 빛바랜 대나무 잎처럼 생긴 차를 절구에 넣고 찧어 낸 후, 다시 물동이처럼 생긴 동이에서 공이로 갈아낸다. 차를 갈 때, 가는 공정에서 마찰 때문에 차가 마르게 되면 다시 물을 조금 친 후, 다시 갈아 고운 가루 상태가 될 때까지 갈아야 하는데, 이때 차에 물을 치는 것을 배수(拜水)라고 한다. 조여려의 〈북원별록〉에는 황실 공납용 승설백차(승설백차) 같은 황제용 차는 16번 정도 배수를 거쳤고, 소용봉단은 4번, 대용봉단은 2번 정도 배수하며 갈아낸 차이다. 따라서 10번 이상 배수를 거친 차야말로 함부로 얻을 수 없는 차였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이나 귀족, 승원에서 열린 명전(茗戰) 놀이에 사용되었던 차는 10배수를 거친 차가 진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시 〈북원별록〉의 '차 만들기(造茶)'에서 배수 후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연분(차를 가는 동이)에서 처음 꺼낸 차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는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태의) 차를 주무르는 것은 (차가) 부드럽고 찰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연후에 틀에서 찍어내 덩이를 만들어 뜸에서 과황을 거친다, 그러므로 그 모양은 네모난 것, 꽃 모양, 대용단, 소용단이 있다. (凡茶之初出硏盆 蕩之欲其匀揉之欲其膩 然後入圈制銙 隨筥過黃有方故 銙有花銙 有大龍 有小龍)'

윗글에 따르면 백차를 만드는 공정에서 절구에 찧어낸 차를 다시 동이에서 갈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종래의 대소용단 같은 단차는 고를 짜내는 공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배수도 2번 정도를 거쳤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차는 16번의 배수를 거친다고 하니 단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력이 필요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과황이라는 공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대체로 잎차를 만들 때 과황은 차 잎을 찌거나 덖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백차의 공정 과정 중에 과황이란 이미 틀에서 찍어낸 덩이차를 뜨거운 불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 중에 뜨거운 수증기를 통과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마 찍어낸 차에 남아 있는 풋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한편으론 단차의 표면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공정이라 여겨진다. 황제용 최고급 차를 만드는 공정 과정인 과황은 가장 섬세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정이다. 어찌 보면 백차의 완성은 과황에서 결정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법을 바로 보는 눈 있어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⑲ 부처와 마군

"요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은 알지 못하고 양처럼 코에 대이면 뭐든지 입안으로 집어넣고 있다. 참으로 종인지 상전인지 가리지 못하고, 손님인지 주인인지 구별을 못하는 꼴이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그릇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 진정한 출가인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속물이 가득한 세속적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무릇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소의 일상에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처와 마군(魔軍)을 가려내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며 범부와 성인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참된 출가인이라 할 것이다. 만약 마군과 부처를 가려내지 못하면 바로 속가(俗家)를 나와 불가(佛家)에 들어왔으나 업을 짓는 중생일 뿐이요 진정한 출가인은 아닌 것이다. 지금 부처와 마군이 한 몸이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물과 우유가 섞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거위는 우유를 먹을 것이요, 눈 밝은 수도자라면 마군과 부처를 함께 물리쳐 버릴 것이다. 그대가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애증(愛憎)에 얽혀 있으면 나고 죽는 바다 속에 떴다 잠겼다 하고 말 것이다."

수행자는 우선 법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법문이다. 말하자면 정견(正見)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임제록〉에서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 법을 간택하는 안목이 없으면 자칫 닥치는 대로 먹이를 입안에 집어넣는 양처럼 정법의 맥(脈)을 알 수 없는 사견(邪見)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출가자는 속된 생각을 벗어나 도(道)를 향하는 정신이 투철하여 비속한 생각을 떨쳐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가자는 누구에게나 도를 깨닫고자 하는 본분공부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공부를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을 기약해서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다.

〈보요경(普曜經)〉에는 출가사원(出家四願)을 설하고 있다. "1. 중생의 곤액(困厄)을 구제하는 것. 2. 중생의 혹장(惑障)을 제거해 주는 것. 3. 중생의 사견(邪見)을 끊어주는 것. 4. 중생의 고륜(苦輪)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종문(宗門)의 정견이란 자성을 직시하여 경계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생멸심이 멈춰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도 받지 말아야 한다. 설사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모두 흡수해버려 심체(心體)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분별경계에서 일어나는 망념의 알음알이를 가지고 선지를 터득할 수 없다. 때문에 정견을 가진 정인(正人)이라야 진정한 출가자라는 것이다. 이론에 밝은 말의 논리나 현학적인 변재를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인의 역할을 말하면서 "정인(正人)이 설사 사법(邪法)을 설해도 그 사법이 정법이 되지만 사인(邪人)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이 사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 출가자가 마군 노릇을 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책하고 있다. 마군이란 결국 정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마(魔)란 범어 마라(Mara)를 줄여 쓴 말로 악자(惡者), 살자(殺者), 장애자(障碍者)로 번역되는 말이다. 좋은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한다.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 하여 도가 높아질수록 마군이 치성해진다 하였다. 부처님 생애를 여덟 폭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팔상도(八相圖)에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 있는데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시켰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정견을 갖추지 못한 사견(邪見)으로 하는 말을 마설(魔說)이라 하고 선(禪)에도 마선(魔禪)이니 사선(邪禪)이니 하는 말도 있다.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애증(愛憎)에 얽혀 있으면 생사의 바다에 부침하게 된다"는 마지막 구절의 말은 〈신심명〉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揀擇)을 꺼릴 뿐(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식심분별(識心分別)을 벗어나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어야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⑲ 불교 세 가지 핵심경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몸을 낮추어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눈높이가 맞을 때 친밀하고 대등하며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다. 비행 중에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뻣뻣이 선 채로 이야기하지 않고, 몸을 낮추어 탑승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절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다.

붓다가 고행을 중단하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아 드신 후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 좌정하여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곳에서 장소를 조금씩 옮겨가며 일주일동안의 사유를 일곱 번 마쳤다. 그 후 범천의 권청에 따라 법을 펴기로 결심하고, 대상을 누구로 할까 살피다가 250km 떨어진 바라나시 인근으로 떠나가 여전히 고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고행친구[후의 오비구(五比丘)]를 찾아가 첫 설법을 한다. 그것이 〈초전법륜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갖춘 불교가 성립한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설법이 〈무아상경(無我相經)〉이고, 60명의 비구들에게 전도선언 후 가야시사로 가서 가섭 삼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배화교도들에게 세 번째로 한 설법이 〈연소경(燃燒經)〉이다. 이 세 개의 경전이 불교의 핵심경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공부를 하는 이라면 누구나 짤막하지만 중요한 이 세 개의 경전을 숙지해야 한다.

붓다께서는 전도선언 후, 가야 인근의 우루벨라 숲에서 500명의 교도를 거느린 우루벨라 가섭, 그 근처 니련선하에서 300명을 거느린 나디가섭, 가야시사에서 200명을 거느린 가야가섭 등 1000명을 교화하기로 하였다. 불을 뿜는 독룡을 섬기는 사당에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독룡을 발우에 가두어 아침에 온전한 모습으로 배화교도들 앞에 선 붓다를 보고, 배화교도들이 놀라는 장면은 이때의 일이다. 이렇게 배화교도 1000명을 개종시켰다.

개종한 배화교도들은 불을 숭상하는 사화외도(事火外道)였으므로 1000명을 대상으로 가야 인근의 상두산(象頭山)에서 설한 〈연소경(燃燒經)〉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감각기관 · 감각대상 · 감각의식 · 감각기관 접촉 · 감각기관 접촉의 느낌[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 곧 6근 · 6경 · 6식과 6근의 접촉[觸]과 6근의 접촉으로 인한 세 가지 느낌[受]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貪瞋痴]의 삼독(三毒)으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 늙음 · 죽음 · 우울 · 슬픔 · 고통 · 불쾌 · 절망[生老病死憂悲苦惱]으로 불타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를 싫어하여 멀리해서 18계[6근 · 6경 · 6식]와 촉수(觸受) 곧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가 사라지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서, '태어남이 멈추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으니,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북전(北傳)대장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전은, 〈잡아함경〉 197번째 경인 〈시현경(示現經)〉이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 이른바 눈이 불타고 있고, 형상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으로 인한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 귀 · 코 · 혀 · 몸 · 뜻도 불타고 있고,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으로 인한 느낌, …도 또한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의 불로 불타고 있느니라."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⑮ 닦음의 길 5

계율, 깨침 향한 첫 걸음

"계율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입니까? 아니면 깨침을 향한 수행입니까?"

언젠가 한 불자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계율을 중시하지 않는 오늘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질문이었다. 물론 계율은 '~해야 한다(ought to)' 는 구조로 이루어진 윤리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깨침을 향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불교의 목적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붓다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以戒爲師)' 고 할 정도로 이를 중시하였다. 그만큼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계율이라고 부르지만, 계(戒)와 율(律)은 본래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계가 자율성이 강한 반면 율은 타율성이 요구되는 규범이다. 계(戒)는 범어인 '실라(śīla)' 를 번역한 것으로 '습관' , 또는 '행위' 를 의미한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양치와 세수를 하는 것처럼,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습관처럼 안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계를 어기면 양치를 안 한 것처럼 마음에 불편함이나 찜찜함을 느낀다. 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목욕인 참회를 하면 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계에 담긴 실존적 의미다.

계는 출가와 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삶의 기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계(五戒)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계(不殺生戒)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계(不妄語戒),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불투도계(不偸盜戒), 삿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불사음계(不邪淫戒), 술을 마시지 않는 불음주계(不飮酒戒)가 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규범이다. 재가의 경우 오계를 어긴다고 해서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에 율(律)은 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율은 규율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범어 '비나야(vinaya)' 에서 유래된 말이다. 율은 단체 생활을 하는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강제성이 수반된다. 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따른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군대의 군율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통 계와 율을 합쳐서 한 단어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구는 250계(戒),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남방의 경우 비구가 227계, 비구니가 311계를 받는데, 부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계율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붓다가 제정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계율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부른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계율이 많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붓다는 입멸하기 전 아난에게 소소계(小小戒), 즉 가벼운 계는 버려도 좋다고 말했지만, 당시 어떤 것이 소소계인지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붓다 입멸 후 모인 제1결집에서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하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은 버리지 않고 지킨다' 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용〉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知恥近乎勇)"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만 아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삶의 에너지다. 불교의 계율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기준이 되는 덕목이다. 이를 기준으로 성찰해보면 어떤 것이 잘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계율은 올바른 삶의 기초이자 깨침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다. 아무리 선정과 지혜를 열심히 닦는다 해도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깨침을 향한 긴 여정에서 선정과 지혜라는 두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계율에서 나온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두려움 제거, '상실' 인정서 시작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⑩ 소란한 마음과 두려움



10-1 명상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현상 가운데 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잘거리는 마음이지요. 생각들은 끊임없이 떠올랐다 사라져갑니다. 어느 한 생각이 고정되어 머무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명상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이 순간만 강조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찰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결과로서 또는 상황으로서 보는 시각은 창조론적 관점입니다. 명상의 바라봄은 연기관입니다. 연기론적 관점은 찰라를 보는 게 아니라 찰나의 흐름, 즉 일련의 역동적 흐름 보는 것을 말합니다.

10-2 산란한 마음은 두려움에 떠는 마음, 환상이나 백일몽같은 망상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등등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과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마음도 포함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를 벌하는 마음도 있군요. 이 모두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무엇이 소란한 마음 배경에 도사리고 있나요?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뒤덮어버리는 소음의 원천은 무엇인가요?(잠시 눈을 감고 숙고해봅니다. 1-2분)

이러한 잡다한 생각들의 배경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군요. 무언가를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상처 받을까봐, 버림 받을까봐 두려움에 떤 나머지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소음의 정체이군요.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 받은 데 대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10-3 이렇게 마음은 상처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해진지 오래여서 인류 시작부터 수많은 위험(물리적)과 위협(정신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명상은 이것을 잘 들여다 보아 이 방어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체 작업은 현재 불편한 감정 상태 또는 감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없애려고 버둥대거나 도망치기 급급하기가 아니라 자애롭게 받아들이고 자애롭게 바라보고 자애롭게 안아주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감정상태입니다. 살아오면서 느꼈던 또는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대면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대로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제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일으킨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내면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도록이면 슬로우 비디오 틀듯이 과정 과정을 봅니다. 어디까지가 외부 상황이고 어디서부터 내면의 작용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처음엔 구분해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바라본 후 다시 두려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의 파탄으로, 어떤 이는 중요한 시험으로, 어떤 이는 법적 문제로, 어떤 이는 특정 대상 또는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로, 죽음의 위협 등등으로...

이런 외적 상황은 다양하지만 마음이 일으키는 내면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어떤 과정들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지 깊이 바라봅니다.

10-4 우선 두려움의 실제 모습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어려서는 실패해도 두렵거나 수치스럽지 않았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실패에 대해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아무리 넘어져도 부끄럽거나 실망하지 않았지요. 줄기차게 다시 일어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끈기가 자연스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위축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실패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고 만다고 결론 내렸지요. 아마도 식탁에서 식사 훈련부터 그리고 배변 훈련 무렵부터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부모로부터 시작된 길들이기가 가혹하면 할 수록 이 수치와 길들어짐은 강화됩니다. 가정 다음엔 학교가 그것을 강화시키고 친구들이 그리하고 조직이나 사회가 그리하지요.

상처 대한 방어적 반응이
두려움으로 전개 · 확대돼
실패와 상실에 대한 우려
떨치면 새로운 자유 나와

10-5 이 상처를 마음 속에 갖고 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무의식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표면 의식에는 길들임(조건화 기제)만 남게 되지요.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기에 두려움이라는 공포반응으로 처리합니다. 상황을 외면하는 방법은 대체로 혼비백산하는 형태로 상황을 돌파하는 대신 피해버리기 모드를 작동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기 거나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또한 공포 반응이란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려 해도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을 무의식에서 떠올려 그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안아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경험되지 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길, 이 길만이 조건화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 스승 또는 전문 지도자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10-6 두려움의 또 다른 실상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요. 건강을 잃을까 봐 재산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지배권(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겁낸 나머지 미리 죽음을 결행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군요. 내가 만든 가정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결과를 상상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자기가 지어낸 환상을 실제로 믿으면서 연출된 일련의 과정임을 보아야 이 두려움이 실제가 아닌 내가 만든 허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둠이 찾아온 저녁 늘 다니던 골목길 저 앞에서 뱀을 봅니다. 무서움에 떤 나머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되돌아섭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 그 뱀이 있을까봐 확인해 봅니다. 뱀 비슷한 게 있는데 한참 동안 지켜봐도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씩 가까이 가 봅니다. 마침내 뱀이 아니라 새끼줄임을 알게 되자 그 새끼줄을 오히려 밟으며 지나갑니다.

이 소년의 가정법은 우리의 자화상이군요. 실상을 자각하면 어린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곧장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새끼줄을 뱀으로 가정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또 넘어져도 그닥 고통스럽지 않게 되어 어떤 상황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10-7 연전에 동경대 출신 스님의 〈생각버리기〉가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 버리기나 생각 없애기 또는 생각 안하기 등은 생각에 대해 부정적 견해에 입각한 발상입니다. 선가에서도 생각은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 생각 바라보기입니다. 생각에는 부정적 생각도 있지만 긍정적 생각도 있습니다. 양자를 다 바라보고 관조하면 부정적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지고 긍정적 생각은 힘을 얻어 통찰로 발전합니다. 문제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삶을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부정적 생각의 배경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과거로 치달립니다. 과거의 상처, 불행, 원망과 후회 등.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힘이 강력하여 없애려하면 할수록 더욱 힘을 얻습니다. 좀체로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까지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실패하지 않으려는 조바심이지요. 미래에 대한 환상적 기대 역시 현실에 대한 보상 방어입니다. 이렇게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주름잡으며 우리 마음을 호령합니다. 부풀려지고 뒤틀리고 채색하고… 나의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망상 수준에 이르기도 하지요.

반면 긍정적 생각들은 능동적이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고 창조적이고 성찰적이며 직관적입니다. 이들은 학문적 발견이나 발명, 학문적 예술적 작품의 결실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예지로운 생각은 삶의 나침반이 되고 빛이 되기도 합니다.

10-8 명상은 이러한 생각들, 부정적 긍정적 생각 모두 그대로 놔두고 바라보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윽히 관조하면 부정적 생각들은 처음엔 따라잡기 어렵지만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고 안개같이 몽상적이던 것들이 형태와 윤곽이 분명해지면서 그 연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과거의 아픔과 관련되어 기억이 떠오르고 그 장면에서 감정이 되살아나고 그 감정을 재경험하면서 당시의 아픔을 추스리게 되면 사건을 임의로 부풀린 전개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채색되고 어떻게 비틀어서 변형시킨 것인지를 확연히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를 깨우치기 위한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버릴 것이 아니고 없앨 것도 아니군요. 저절로 사라지도록 지켜보아야 할 명상 대상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하면 나쁜 생각들이 억눌려 숨게 되고 그리되면 무의식에 갇히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들이 무의식에 자리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바라보면 에너지 수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면 더 이상 준동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비워지지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비우기입니다.

생각에 차별을 두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관조하라.
호흡과 함께 관조하라.

〈한별정신건강병원장〉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낮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3호 | 15 | 전면광고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나라의 왕이 편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 미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론》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무료 灸 쑥뜸
코로나로 발생으로 수행정진 하시는 스님, 불자님 건강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사부대중님들께 쑥뜸 공양을 시행 하고저 합니다.
진행과정 : 약쑥은 강화산 7년숙성한것
❶ 간접구(大)1일2시간30 ❷ 20일간 진행.(외출불가) ❸ 쑥뜸,환약,부항.진행 방사관계로 1차10명이내로 제한.10회차까지 진행할예정. (불자님들은 식비만 부담)
장 소 : 동해 향운암 (바다가 조망되는곳)
Tel.010-2873-3446 www.향운암.kr E mail.ee1929@Daum.net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010-5576-2271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도심사찰)
010-5736-1835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침향 염주입니다.
구입문의 : 010-2033-6636 침향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대방광불화엄경의 감춰진 비밀
초발심자가 문뜩 정각을 이루는 법!!
1.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2.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믿음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다.
4. 선견약이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독한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준다.
5.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문의 : 010-7131-708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3호 | 16 | 전면광고

너희는 여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것이요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내토굴
◎ 대지 : 19평
◎ 지상 3층건물
◎ 각층 : 19평
◎ 매가 : 1억7천5백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대응사(종교부지 1700평) : 백병길 171 ●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임대에서 매수전환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조건 및 금액절충)

010-4225-0012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 총 607평(종교부지 포함)
- 법당(25평), 요사채(30평) 조립식
- 가액 : 1억3천5백 (시설일체 드립니다.)

010-9504-7259

동 진 불 사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약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닷집,단청)
◎ 가액 : 9억7천만원
◎ 특징 : 신도관리가 잘되어있어 사찰운영이 용이하고 1급수의 계곡과 조경이 어우러진 대가람의 사찰임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 부지 : 500평(대지)
◎ 법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기타 : 산신각,연못,석등
◎ 가액 : 7억5천만원
◎ 특징 : 도심 외곽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 제주,부산지역 급매물 찾습니다 ****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3층건물 3층 약 35평, 주차장, 상담실,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02-5496

포 교 원 안 내

- 역학 할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정남향
- 보100 / 월50
- 권리 부가세 무

010-5381-1419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요사,접견실,나한전,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동대(병원)10분
- 대지250평, 하천부지400평
- 8각법당30평, 요사채2동, 종무소1동, 버스20분격, 2차선에서 절까지200m, 산끝, 계곡1급수도 있고 면사무소, 우체국, 목욕탕 모두10분내, 슈퍼마켓 1분
- 2억9천(부동산 업체사절)

010-9388-021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3층 약50평
- 지하철 도보3분, 대전역 3정거장 도보20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7725-319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93 호 현대불교
2020년 5월 13일(4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내가 마음먹고 결정하는 대로 이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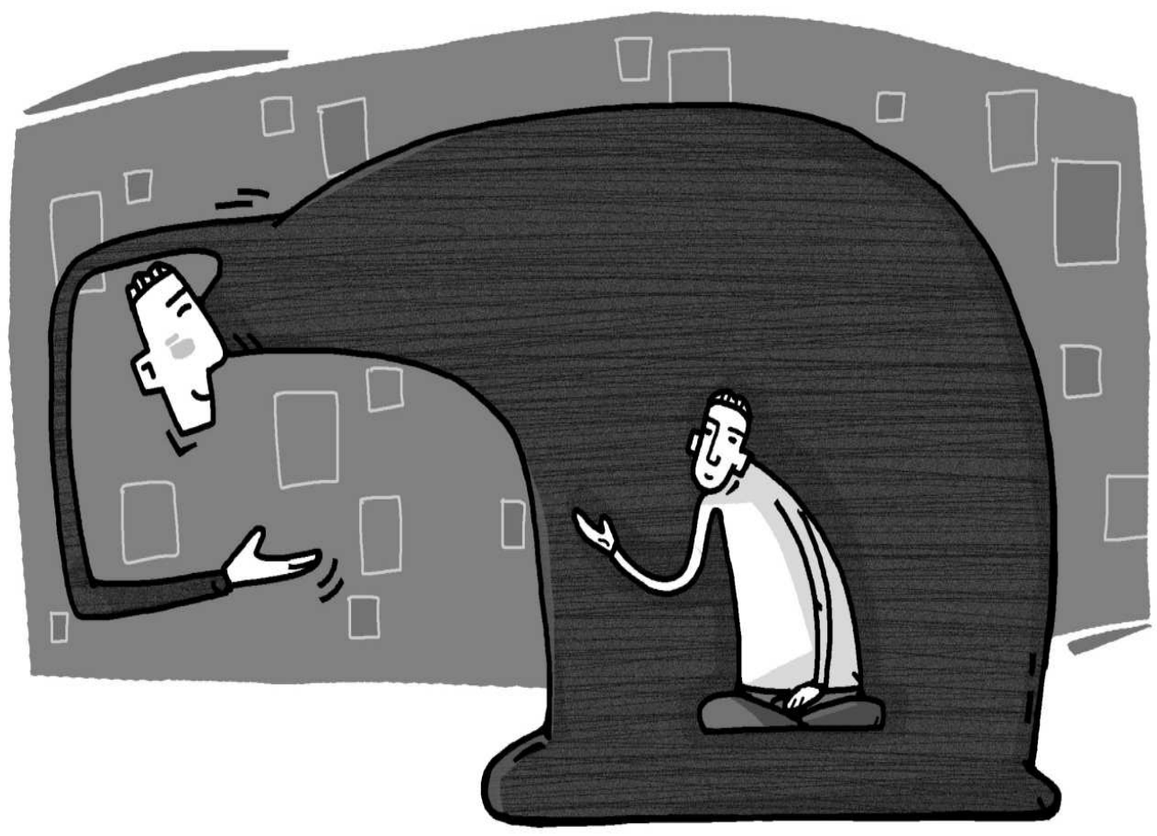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관한다는 것은

질문 :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연히 대행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큰 행사 때만 친구 따라 절에 가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공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 이제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관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관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 누구든지 앉아서 관하든지 서서 관하든지 누워서 관하든지 일하면서 관하든지 바로 들어간다면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한마음 주인공밖에 없어!'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맡겨 놓는 것이 관이에요. 관해 본다, 관해 듣는다,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움죽거리고 있다 이런 걸 이름해서 관세음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하기 이전에 각자 나를 먼저 발견해야 하니까, 나부터 알아야 하니까, 진리 속에서 참구해서 알아야 하니까 내가 있는 것을, 즉 말하자면 내 집에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남의 전화도 받을 수 있듯이, 나부터 먼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내 근본 불성 자체가 있다는 것을, 주인공, 너만이 알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참구하는 거고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진실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다음에는 일하면서도 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애로가 닥치는데, 누가 아프다든가 뭐 별의별 게 다 닥치죠. 그런데 그렇게 닥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거기 맡기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로 둥글려서 놓고 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주 만물 천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니, 비로소 관한다는 말조차도 붙지 않는 자기 근본 자리를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여러분이 모르고 또 못 믿으니까 관하라고 하는 거고, 믿으라고 하는 거고, 일체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 큰스님 가르침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고 싶은데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이게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똥 마려울 때 똥 누고 잠 올 때 잠자고 이러는 처지라면 이건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건데 자유스럽게 못 사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 습성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가 망가지지 딴 사람이 망가집니까? 못 믿는 것도 믿는 것도 바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공기주머니 속이라는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알궁달궁하고 그 여럿이 그냥 거기 다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 주머니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몸뚱이도 우리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은 우리가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깐 항상 자기가 거기다 놓고 관하면 이 의식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통한다 이런 뜻이죠. 통해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먹고 결정하는 대로 다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이면서 공식화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한데 합쳐져서 다섯 가지 중에 공식으로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모습 있는 이 유의 세계에서는 이 '이것이 있다, 없다'가 꼭 들어가지마는 이 무의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가 없죠. 그리고 크다 작다도 없고요. 길다 짧다도 없고, 높다 얕다도 없고요. 못났다 잘났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류화시켜서 그렇게 잘 돌아가게 하느냐. 그 도리를 알면은 합류화가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돼서 돌아간다 이거죠. 컴퓨터에서는 조끔만, 번호만 잊어버리면 다 그냥 회사가 몽땅 다 날아가지만 우리 머리의 입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건 뺏어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믿는다, 이건 벌써 대상이에요. 이 부처님 앞에 오면 부처님 모습은 내 모습이고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예배를 올리되 내면에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다 맡기고 하든지 안고 하든지 하여튼 예배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여기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분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이 우주의 에너지 창고가 하나가 있다면 그 에너지 창고에서 수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다 꺼내 쓰는 거죠. 에너지 창고가 뭐, 수없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창고는 하난데 그 하나 속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암흑은 암흑인 줄만 알았는데 암흑도 아니고 이게 밝음도 아니다. 그러면 밝음이 더 많이 비싸냐 암흑이 더 비싸냐. 암흑이 밝음을 가져오게 하는 바도 그 대비 대책을 세우는 에너지기 때문에 그건 둘이 아닌 까닭에 더 소중하다. 근데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죠. 밝음도 소중하고 그 에너지도 소중하고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과 이 모습과 어떻게 둘입니까, 그게. 둘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것을 이렇게 상대를 놓고 믿지 말라 이런 뜻이죠. 전에 내가 어릴 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고 모두들 하는데 쭉들 서서 하는데 거기에 한데 끼어서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뭣을 생각했느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가 지어 놓고 저 신부님한테 저렇게 가서 죄 얘기를 하고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난 여기 서 있기가 싫구나.' 그래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죠. 여러분들도 그냥 길을 걷다가도 한 생각이 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이 처절하게 되면 또 낙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낙오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이런 것도 둘이 아닌 그 가운데서 네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까 "이리 오너라, 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불러 가지고선 멱살을 쥐고 그냥 한데 쥐어박으니까 "아이구" 그러곤 엎드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깐 "아이구 하는 놈은 누구냐."

☞ 18면으로 계속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의 종자를 발현해 내는 겁니다, 지금. 발현해 내는데에 우리 주인공이라는 것은 쥘래야 쥘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런 까닭에 종자 아닌 종자다. 그런데 "종자 아닌 종자를 심어서 키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잘 큽니까?" 하고 물으니깐 "방귀씨를 갖다가 심어서 키우려면 방귀털을 먹여야지."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 방귀털을 먹이는 것도 또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대답을 하려면 연세가 많이 잡수신 어른들한테는 합장을 곱게 하고 하고, 좀 젊은이들한테 그 답을 하려면 또 소리가 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답을 그렇게 소리 나게 하고도 한 번도 벽 하나 손바닥으로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벽 하나 치지 못했다. 하하하.

구경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하시는데

질문 : 저는 어려운 일 있으면 큰스님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큰스님 법문에 구경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같이 세속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변 : 구경경지란 삼세를 한데 포함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도 공해서 둘 아니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구경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공부할 때에 구경경지에 이르러야만 된다 이겁니다. 구경경지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항상 그 도리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 찾으면서 나를 또 덧붙이기로 이름을 갖다 거기다가 붙이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건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 열심히 하면 그 주인공에는 다 같이 합해져서 있다 이 소립니다.

딴 이름 부를 게 없죠. 때로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기 뿌리와 내 뿌리가 동일하게 같이 돌아가는데, 제자다 스승이 다 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어찌 그게 둘이겠습니까? 자기와 나와. 그러니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한 방석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생활 속에서 잘 리드해 가면서 잘해야만이 사자좌에 앉게 될 겁니까?

누구라고 그렇게 못 한다 하는 법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못생기고 잘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권리가 적고 권리가 없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디다. 아이, 별안간에 잘되더니만 안되는 게 탁 오길래 '허, 이것 또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게 오는구나!' 하고선 딱 굴려서 놓으니까 그냥 그게 싹 없어지고 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지, 안 되는 걸 배우지 못하고는 도가 아니에요. 되는 것도 배우고 안 되는 것도 배우고 또 그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고, 또 이 인생길이 바로 도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고 묘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이거를 탓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된다 이렇게 해도….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탁 넘어지면 되게 넘어지면 "엄마!" 하잖아요. 그거와 같아야 돼요. 이게 넘어질 때 그냥 "엄마!" 부르듯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엄마!" 부르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부딪칠 때마다…

질문 : 모든 게 자기 탓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고에 부딪칠 때마다 팔자 운명 탓으로 돌려지곤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일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모두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어요. 지수화풍 아니었더라면 딛고 다니지도 못해요, 붙어서. 또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날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이겁니다.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났으니까 고생도 하고 아파도 보고 별짓 다 해 보고 별것 다 보고 별생각 다 해 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 차원이 높아져요. 그걸 전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다음 세상에 다시금 내가 나올 때는 정말이지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높이고 우리의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 무르익어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고생하는 거를 갖다가 허물치 말라. 왜냐하면 고생하는 것도 그게 외려 덕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죽어 가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을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알게 되고…. 모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극한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잠시 잠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거를 그렇게 그런 것이 언짢다고, 그런 것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몸뚱이는 가을 잎과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마저 죽나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그 경험을, 참 만사 만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까. 죽어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굶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 보고야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세상!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도 한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도 한세상이다 이겁니다. 자기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를…. 무엇을 바라겠소? 이렇게 살고 한세상 가는 거나 저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지마는 고생하고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남을 리드할 수 있고 고생하는 사람 밥을 줄 수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다 쌓아 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석존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너는 석가가 돼라. 그런 재목이 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언덕이 없다면 소가 가다가 그 언덕에 비빌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언덕이라면 바로 내가 언덕이 있으니까 소가 비볐지 언덕이 없고 평전인데 어떻게 소가 비비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고비를 그냥, 어려운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많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또 그렇게 받을 거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아주 영원한 컴퓨터에 탁탁 입력이 돼 들어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나는 거기에 상관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으로 돌려라. 그래야 모든 게 풍족해지고 물리가 터지고 세상만사를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포용력이, 두 팔을 벌리면 이 우주 천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길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 죽어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죠.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대통령으로서 출마한다고.

그러니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그 쓰라림을 당하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새. 그런데 괜히 왜, 골이 비었나? 걱정 근심하고, 아니 괴롭게 살게? 골 비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제 아시겠어요?

가족이 화합이 안 돼요

질문 : 가족이 화합이 안 됩니다. 특히 고2 되는 큰딸은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학교생활도 힘들다고 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답변 :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하지만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온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삼만 년 전이라도 그것은 내 부모였으니깐, 내 자식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까닭에 우리가 저 딴 혹성을 가서 볼래도 가서 보는 사이도 없이, 들고 와서 보는 사이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다. 그거와 같다 이거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신계를 배우는 건데, 정신계를 배우는 데 정신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가 혼합이 돼서 같이 수레가 돌아가듯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같이 둘 아니게 쓴다. 악도 선도 둘이 아니다. 그럼 악은 악대로 악하게 구는데, 만약에 나한테 따귀를 때리고 악하게 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따귀 맞고 한번 관해 주는 거죠, 뭐. '전자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때려 줬으니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인연 없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한 일이 없고 받은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을 해하게 했으니까 나한테 해하게 돌아오지 해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해한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은 무섭게, 아주 그냥 무섭게, 알게 모르게 그냥 이 정신을 뺏어 가고 정신을 치고 그러니까 모습도 망가지고 이럭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깐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관해 주면 그냥 바뀌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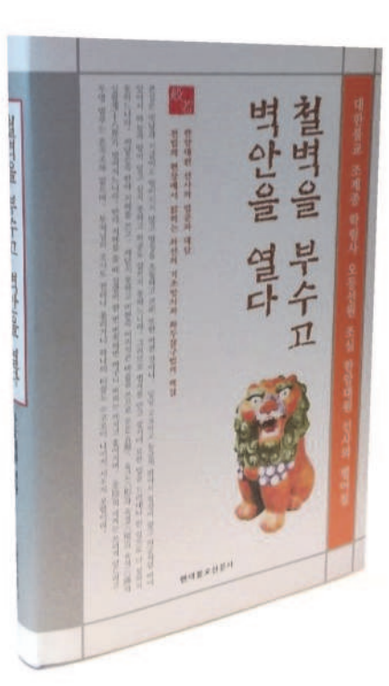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바뀌지고 외려 미안해하고 그렇게 돌이켜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선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과 선을 다 놔라. 잘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그러지만 잘하는 것만 있다면 나중에 잘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깐 잘하는 거나 잘못하는 거나 다 놔라.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해라.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하되 항상 중심을 두고 중도를 택해라. 남을 해치지도 말고 나를 해치지도 말고, 또 일체 부처를 원망하지도 말고, 일체 조상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셨다면 잘했든 못했든, 그 가정이 가난하든 부자든, 다 성격에 달렸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들은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말입니다. 잘해 주든지 못해 주든지 자식을 아주 위하는 반면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억울하다고 부모가 그렇게 해 주는 바람에 내가 참 피곤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그러지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배워서 지금 사는 사람들, 전에 태어나서 전에 살던 습, 습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도 그렇게 자꾸 그럭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관하면 그렇게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관하는 도리를 잘 일러 주시고 연방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해 주신다면 돌에 갖다 세워 놔도 살 수 있어요.

>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여러분이 모르고 못 믿으니까
> 관하라는 거고, 믿으라는 거고, 일체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러니 진짜고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서로가 당당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도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한다.

주는 자
받는 자
둘 다 완전하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알마티, 쿨자바스이

말을 탄 사냥꾼과 큰 산양이 정면으로 만났다. 산양은 급한 순간을 만나 두발을 앞쪽으로 쭉 뻗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화살을 피할 틈도 없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마지막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다. 사냥꾼도 자만심이나 방심함 없이 최선을 다한다.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넘치면 안 된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불리하고 패배할 위기를 맞이했더라도 삶의 숭고한 뜻을 잃지 않으려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⑩ 경봉 스님

"걸림 없는 삶 살아라"



'무가애(無罣碍)' –경봉 스님의 유묵

경봉 스님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기 때문에 따로 서신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여쭐 것이 있거나 들을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뵈었다. 서신은 아니지만 서신처럼 생각하며 받은 것이 있다. 어느 날, 유묵을 한 점 주셨는데, 주신 말씀은 '무가애(無罣碍)'였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당부하셨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가슴에 품어야 할 공부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글이었지만 스님의 글씨로 받고나니 새삼 무겁고 경건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실천의 의지가 전에 없이 새로웠다.

경봉 스님과의 인연은 아버지가 먼저다. 아버지께서 환약이나 경옥고를 지으실 때면 언제나 경봉 스님과 월하 스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난 후에 대중에게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께도 기회가 되면 약 공양을 많이 하셨다.

하지만 경봉 스님이 극락암에 주석하시는 것은 연꽃모임을 만든 후에 알게 됐다. 당시 극락암에서 일요법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때 서울에서 온 지인이 경봉 스님 친견을 원해서 함께 스님을 뵈러 간 적이 있다. 여름이라 모가가 많았다. 모기장 안에 계신 스님을 가까이서 뵙겠다고 우리는 스님이 계신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의 법문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스님이 "명초당 딸이라고?" 하시며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음을 일러주었다. 스님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시고는 나와 도반에게 손바닥을 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스님은 스님의 손바닥으로 우리의 손바닥을 탁탁 치시면서 "소리가 났재? 이 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잡아봐라"고 하셨다. 화두였다.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 스님.

근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자 통도사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 스님은 틈이 날 때마다 붓글씨를 쓰셨는데, 하루는 내게도 한 점을 주셨다. '무가애(無罣碍)', 세 글자로 된 서신이었다. 우리집 가보 중의 하나다.

스님은 36세에 화엄산림 기간 중 오도한 후 통도사 극락암에 선원을 열어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했다. 그리고 근대 한국불교 선풍의 중흥을 이끌었다.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6일째 되던 날 새벽에 활연개오하여 이전까지 화엄의 테두리 안에서 경계지어진 화엄의 틀을 깨고 조사선의 진정한 위용과 함께 선승으로서 이사무애한 삶을 산다. 그런 선승의 면모 뒤에는 한시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했던 시승(詩僧)의 면모도 간단하지 않다.

경봉 스님은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나 자연에서 느끼는 감성, 주변인과의 교류, 문학작품들을 '일지'를 통해 남겼다. 통도사 시승의 계보를 이은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영결식을 하던 날이었다. 큰 소낙비가 퍼붓더니 갑자기 큰 쌍무지개가 하늘에 떴다. 무지개는 한참을 떠있다 사라졌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처럼 느껴졌다.

그 시절의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자하신 그 미소와 "극락엔 길이 없는데 어째 왔느냐?"던 선문답과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지 말고 물조심해서 잘 가거라"던 따뜻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 공모주제 - 자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잘 찍어서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진
- 사찰, 경내, 꽃, 하늘, 도반, 순례, 포행, 인물, 동물등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싶은 사진 또는, 스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범하고도 훈훈한 감동 있는 사진 등

| 출품방법
- BTN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출품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Mb 이상 10Mb 이하의 JPG파일
- 1인 10점까지 가능(출품비 없음)

※ 1인당 응모사진이 10장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수가 빠른 순대로 10장까지만 정식 접수됩니다. 이후는 응모작에서 제외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 6월 30일 / 심사발표 : 7월 말 BTN 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모대상
- 국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만(외국인 스님 포함) 응모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시 상

BTN사장특별상 (1명)	성지순례 상품권(130만원 상당)
대상 (1명)	상금 300,000원
금상 (3명)	상금 200,000원
은상 (4명)	상금 150,000원
동상 (5명)	상금 100,000원
가작 (10명)	상금 50,000원
입선 (10명)	20,000원(기프티콘)

| 문 의
-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검색, 친구추가 후 문의
- 또는 btnucc@btn.co.kr로 문의

[NOTICE]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 사진이여야 하며,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합니다.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결격사유 시 수상취소와 지급된 상금은 반환/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순위가 높은 분야만 시상하며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수상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분쟁 있는 경우.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전체 100권 중 1차분 10권
『화엄현담』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10
- 화엄현담華嚴玄談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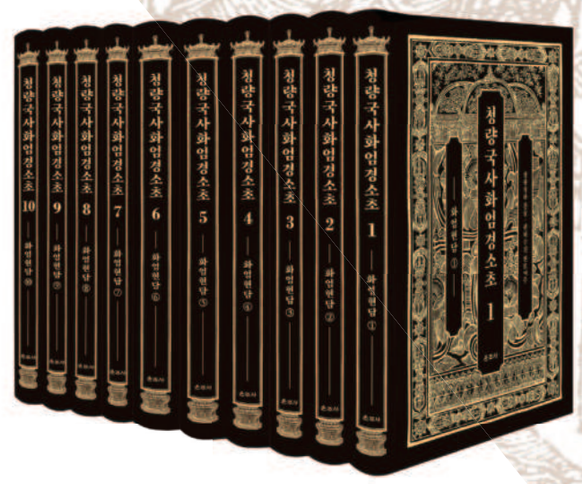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과 논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불사!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1권: 22,000원 | 2권: 20,000원 | 3권: 20,000원 | 4권: 22,000원
5권: 25,000원 | 6권: 25,000원 | 7권: 17,000원 | 8권: 17,000원
9권: 15,000원 | 10권: 17,000원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T. 031)955-3200 www.gimmyoung.com 김영사

"무모하다 그 남자!"

24년의 시간, 600억원의 투자! 그는 왜 한식에 인생을 걸었는가? 무엇이 그를 불타오르게 했는가?
국내 최초의 생활 도자기 개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최초의 고급 한식당'가온'오픈, 고급 한식을 완성할 전통술의 재현, 전통 이미지를 살린 벽지 개발까지!
명품 한식이라는 단 하나의 사명에 인생을 건 남자. 조태권의 지독하지만 숭고한 휴먼 스토리. 밥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백발 청년의 무한 도전이 펼쳐진다.



조태권 지음 | 304쪽 | 13,000원



밥상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조태권의문화보국

"우리 전통과 문화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정관념을 깨고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가 조태권의 첫 번째 책!
무엇인가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마저 달아오르게 만든다. 스스로 미쳤다고 말할 만큼 온전히 미친 그는 한식에 빠졌고, 도자기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마침내 우리 문화에 미쳤다. 그런 그의 미친 행적이 얼마나 큰 정신적, 경제적 부를 세상에 안겨다 줄지, 20년 이상 그를 겪어 본 나로서는 확신하는 바가 있다. 그는 결코 더 가지기 위해 또는 더 얻기 위해 스스로 미친 것이 아니다. 한때 몽상가라 불리던 그의 광기는 애국적 열정이라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김재진(시인)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